

# 恩津 雙溪寺 간행 불서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f Buddhist Literature Published at SSanggyesa Temple  
in Choongnam Provinces

임 기 영 (Lim, Keeyoung)\*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간행 불서의 서지적 특징 |
| 2. 쌍계사의 연혁 및 사찰의 서적 간행 | 5. 맺음말           |
| 3. 간행 불서의 현황           | <참고문헌>           |

## < 초 록 >

이 연구는 조선시대 호서지역을 대표하던 사찰로 손꼽히던 恩津 雙溪寺에서 간행된 판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쌍계사의 출판 활동은 1565년 『高峯和尚禪要』를 시작으로 16세기에만 14종에 달하는 불서를 간행하였다. 17세기에는 그 빈도가 줄어 6회의 출판 활동이 있었고, 18세기 1종을 간행한 뒤 더 이상 사찰의 출판 사례는 없었다. 사찰에서 출판된 서적의 주제는 총 21회의 刊經 불사 가운데 8회가 宗義部 禪宗類 서적의 간행이었다. 그 외에 경전류로 『法華經』과 『恩重經』, 사찰의 의식에 필요한 『中禮文』, 『結手文』 등 실용 의례서의 간행이 주를 이루었다. 쌍계사 출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선종류 서적의 출판이 40%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경 출판 시 16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4종의 대규모 간역 사업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유한 시주자들의 私家 출판을 적극 활용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사찰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할 수 없거나 인력 조달이 쉽지 않은 경우, 재원이나 인력을 私家와 분담 또는 협업하여 출판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정황은 다른 사찰의 출판 활동과는 구별되는 雙溪寺版의 특징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要語: 雙溪寺, 雙寺, 寺刹版, 恩津, 佛明山, 岬寺

## < ABSTRACT >

This study dealt with the books published by Eunjin Ssanggye Temple, which was considered a temple representing the Hoseo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he survey, Ssanggyesa's publishing activities started with *Gobonghwasangsunyo* in 1565, and in the 16th century there were 14 kinds of Buddhist books published. In the 17th century, there were six publishing activities due to the decrease in frequency. In the 18th century, there was no longer a case of temple publication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type. The theme of books published in temples was the publication of Zen books eight out of a total of 21 publishing cases. In addition, most of the other practical books were used such as *Bubhwagyeong* and *Eunjoonggyung*, which is necessary for the temple's event, and *Joongryeumoon*, *Gyulsoomoon*. One of the biggest features of publishing Ssanggyesa is that, first of all, the publication of Zen books accounts for nearly 40 percent of the total. And there is an example of the active use of private publishing by wealthy sponsors in the publishing of Buddhist scriptures. It is believed to have shared or collaborated with individuals to publish money and people if it is not possible to raise money directly at the temple or to recruit people. Circumstances like this are regarded as a characteristic way of publishing Ssanggyesa, which distinguishes it from the publishing activities of other temples.

Key words: Ssanggyesa, Ssangsa, Temple publishing, Eunjin, Boolmyungsan, Gapsa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impussiant@knu.ac.kr)

투고일: 2019년 5월 12일 최초심사일: 2019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26일  
서지학연구, 제78집, 175-212,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8.175]

## 1. 머리말

우리나라 고인쇄사나 출판 문화사의 관점에서 사찰은 본연의 목적인 승려의 수행 및 정진 장소로의 공간이었던 것과 더불어 불경의 출판과 불교 서적 유통의 시발점이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찰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서적을 찍어내는 등 지역 출판사의 역할 또한 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조선 중기까지 대두되지 않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족보, 유가문집 및 역사서, 소설류 등 다양한 서적을 찍어내기도 하였다.

더욱이 전존하는 고문헌 중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의 수량을 살펴보다도, 고려와 조선 시대를 통틀어 그 간행 활동은 결코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찍부터 여러 학자들은 사찰의 출판 활동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 결과 비교적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松廣寺나 海印寺, 通度寺 등의 사찰 출판 활동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었다. 또 큰 규모의 사찰은 아니더라도, 지역을 막론하고 雲興寺, 澄光寺, 龍湫寺, 湧泉寺, 龍腹寺, 佛庵寺, 龍藏寺, 廣興寺 등 단위 사찰의 출판 활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 대상 지역을 북한으로 넓혀 普賢寺, 釋王寺 등에서 이루어진 서적 간행 활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충청 지역 사찰 중 조선 중기 비교적 활발한 불서 간행 활동을 하였던 恩津 雙溪寺의 출판 활동에 대한 검토로, 전존하는 사찰 간행 서적 및 관련 기록을 살펴보았다. 은진 쌍계사는 현재 大雄殿을 비롯하여 명부전, 관음전에 봉황루와 산신각, 요사체 등 비교적 소규모로 남아 있다. 하지만, 창건 이후 사찰은 수차례 부침을 겪은 사실이 확인되고, 사찰이 대대적으로 중건된 시점인 18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건물이나 寺勢가 번창하였던 지역의 대표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쌍계사의 출판 활동에 대하여 일찍이 이세열<sup>1)</sup>은 충청지역 사찰 출판의 일환으로 대략적인 전모를 파악하였으며, 송일기<sup>2)</sup>도 쌍계사 출판 활동의 개황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간행 판본에 대한 미시적인 검토나 조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사찰 관련 사료를 수합하고, 전존본의 조사를 통해 쌍계사 출판의 현황 및 간행서에 나타나는 기록과 판본의 서지적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李世烈, “충청지역 전적문화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89).

李世烈, “충청지역 사찰판본 연구,” 『古印刷文化』 제20집(2013. 9), 141-201.

2) 송일기, “鷄龍山 岬寺 所藏의 『父母恩重經諺解』 雙溪寺 經板,” 『불교문화연구』 제6집(2005. 12), 145-147.

## 2. 쌍계사의 연혁 및 사찰의 서적 간행

### 2.1 연혁 및 역사

#### 2.1.1 창건 이후 조선시대

쌍계사는 현재 논산 陽村面 佛明山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말사이다. 현재까지 남아 전하는 사료 가운데 쌍계사의 시원을 밝힌 문헌은 많지 않다. 그 중 「雙溪寺重建碑」는 가장 눈에 띄는 자료로, 쌍계사는 고려 초기 광종 무렵 관촉사의 석조미륵보살입상을 조성한 慧明大師가 창건 하였고<sup>3)</sup>, 창건 당시의 寺名은 白菴이라 부른 것으로<sup>4)</sup> 알려져 있다. 白菴 즉 쌍계사 일대를 慧明의 道場이라 칭한 것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창건 후 쌍계사는 14세기 중엽 杏村 李岳(1297-1364)에 의하여 중창되었고, 중창 당시 牧隱 李穡(1328-1396)이 연기문<sup>5)</sup>을 지었다. 이후 고려말 조선 초기에는 대단히 번성하여 충청도와 전라도를 대표하는 사찰로 사찰의 쌀뜨물이 절 밖 10리까지 흘러내렸다는 일화가 전하기도 한다.

한편, 사찰에 대한 기록으로 조선 전기 사료는 傳되다가, 16세기 중엽부터 사찰의 출판 활동이 본격화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 시기의 빠른 기록으로 1530년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충청도 恩津 佛宇條에는 쌍계사가 佛明山에 위치<sup>6)</sup>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당시 은진현에는 쌍계사와 더불어 灌燭寺, 金地寺 등 4개 사찰이 존치하였다.

이밖에 현재까지 확인된 불서 판본 및 사찰의 관각 활동으로 미루어, 최초의 출판은 1565년 가을에 이루어졌고, 연이은 16세기에는 집중적으로 경전을 간행한 정황이 드러난다. 더불어 16세기 후반 사찰에서는 단풍의 변상 판화로 「勸修淨業往生捷徑圖」나 「菩薩觀音圖」 등이 새겨진 바 있다.<sup>7)</sup>

이후 17세기 초 1605년 3월에는 전란 등으로 인한 사찰 내 대웅전의 대대적인 중수 및 삼세불상의 신규 조성 작업이 이루어졌다. 당시 중수 작업은 그 해(1605) 3월에 시작되어 같은 해 7월에 일단락되었고, 새로 조성된 불상은 쌍계사의 2층 전각에 봉안되었다.<sup>8)</sup> 그 뒤 1716년 自英이 재차 대웅전을 중창할 때, 道禪이 기와를 조달<sup>9)</sup>하였다. 이로부터 20년 뒤인 1736년 11월에는 큰 화재가 발생하여

3) 慧明이 창건하였다고 밝힌 문헌이나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雙溪寺重建碑의 '慧明道場'이라는 구절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추정됨.

4) 「雙溪寺重建碑」 제3행 이하, '… 佛明之雙溪古名籃也一名白菴在勝國李杏村發願 … 白菴一洞慧明道場梵宮久傷 …'

5) 「雙溪寺重建碑」, '… 李杏村發願營之牧隱先生寔爲之記其古且名可知己之寺也 / 縱無水石 …'

6)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8권 충청도 恩津縣 佛宇條, '… 雙溪寺 在佛明山 / 金地寺 普門寺 …'

7) 김자현, “恩津 雙溪寺의 16세기 單幅變相版畫 研究,” 『미술사학연구』 제300호(2018. 12), 147.

8) 문명대, “釋俊·元悟과의 성립과 논산 쌍계사 삼세불상(1605년) 및 복장의 연구,” 『강좌미술사』 36권(2011. 6), 581의 雙溪寺 三世佛 腹藏 출토 1605년 寫 「造成發願文」, 「萬曆三十三年乙巳季春三月日欲成佛 … 工于手作過夏而孟秋七月敬造訖功晦日安于雙 / 溪寺二層敬禮造成願文開錄于 …」

사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이 화재의 복구를 위하여 많은 이들이 동원되었고, 사찰의 중수 작업은 1738년 6월에 일단락<sup>10)</sup>되었다. 이처럼 2년여에 걸친 큰 공사를 기념하고,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1739년 5월에는 사찰의 입구에 『雙溪寺重建碑銘』을 건립하였다. 이 비명은 金樂曾이 본문을 짓고, 李華重이 글씨를 썼으며, 비문을 실제 새긴 彫刻手는 金樂祖가 맡았다.<sup>11)</sup>

다만, 특기할 점은 이 당시 대웅전을 중수할 때 원래 2층이었던 본당에 높은 기둥이 될만한 재목이 없어서 1층으로 고쳐 만들었다 기록<sup>12)</sup>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1605년 대대적인 대웅전 중수시 또는 1716년 自英이 중건할 당시에는 대웅전이 2층으로 지어졌던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와 같은 일련의 대대적인 중수 작업 이후에도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741년 5월에는 경내의 鳳凰樓가 신축 또는 중수<sup>13)</sup>되었다. 이 봉황루가 당시 최초로 지어진 것인지, 몇 년 전의 화재 여파로 중수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봉황루는 그 뒤로 두 차례 더 중수되었던 바, 첫 번째는 1842년 3월이었고, 두 번째는 비교적 근대인 1941년 7월<sup>14)</sup>이었다. 다만, 1842년의 기록에 따르면, 승려 麟麒가 중수를 주도하였으며, 당시 사찰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당의 기둥이 썩어있었고, 요사의 기와는 깨어진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 실제 보수 작업은 대웅전, 봉화루, 명부전, 寂默, 隱仙, 下禪을 일제히 중수한 사실을 밝혀두었다. 또한 寺勢가 기울었던지 재화를 모으는데 쉽지 않았던 경위를 적어두기도<sup>15)</sup>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곧 19세기 중엽에는 이미 사찰의 건물을 비롯하여, 사세가 많이 쇠락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세기 이후 寺勢는 급격히 기울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방증하듯 19세기 1872년경 사성된 은진군의 자세한 모습을 담고 있는 『恩津地圖』에도 사찰의 모습은 大雄殿과 十王殿, 僧堂의 소략한 모습만으로 묘사되고 있다. 더불어 사찰에서 간행된 서적의 중수도 19세기 이후에는 1종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사찰의 명칭에 관하여 일부 문집 및 1573년 2월에 간행된 『妙法蓮華經』의 권말 기록에 의하면, 雙寺로도 불리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9) 1738년 6월 尹恕教 寫 『恩津雙溪寺重創記』, ‘… 自癸酉二十四年而至 / 丙申僧自英重創大雄殿而道禪瓦之又二十一年而太 / 歲在丙斗 …’

10) 1738년 『恩津雙溪寺重創記』, ‘/ 崇禎紀元後一百十一年著雍敦牂之流月 / 上浣坡平後人沙潭塾翁記 / …’

11) 1739년 5월 刻 『雙溪寺重建碑銘』, ‘恩津雙溪寺重建碑銘并 / 德恩宰月城金樂曾撰 / 魯城長韓山李華重書 / 咸羅倅月城金樂祖篆 / 佛明之雙溪 …’

12) 1738년 『恩津雙溪寺重創記』, ‘… / 是殿本是二層而今無堪爲高柱之木改爲單 / 層殿基視前稍上 …’

13) 1741년 寫 『鳳凰樓上樑文』, ‘乾隆六年辛酉五月十一日上梁 / 山中大德 懷聖 / 山中大德 法行 / …’

14) 1941년 寫 『鳳凰樓 重修上樑文』

15) 1842년 寫 『道光二十一年..上樑于鳳凰樓』, ‘… 夥遇助緣之壇信宇之修瓦之鱗大雄殿鳳凰樓冥府寂默隱仙下禪一齊重葺稽延屢月如于 / 鳩財每患不足故自分其力以助其欠之財 …’

<표 1> 고려 및 조선시대 쌍계사 주요 연혁

연도	내용	비고
[10-11]세기경	[慧明 창건]	『雙溪寺重建碑銘』
14세기 중엽	杵村 李岳(1297-1364)이 사찰 重創	『雙溪寺重建碑銘』
1530	佛明山에 자리함	『新增東國輿地勝覽』
1565.가을	사찰의 최초 출판 활동이 인본으로 확인됨	『高峯和尚禪要』
1571.	변상관화 및 보살도 판각	『勸修淨業往生捷徑圖』, 『菩薩觀音圖』
1580.04	변상 관화 판각	『熾盛光如來降臨圖』
1605.03	대웅전 중수 및 삼세불 조성	『造成發願文』
1716	自英이 大雄殿 재차 중수, 道禪이 기와 조달	『恩津雙溪寺重創記』
1736.11	사찰에 대규모 화재 발생, 사찰 500-600칸 전소	『恩津雙溪寺重創記』
1738.06	대웅전 중건 등 화재 복구 및 중수 일단락	『恩津雙溪寺重創記』
1739.05	쌍계사중건비 건립	『雙溪寺重建碑銘』
1741.05	봉황루 상량(重修 또는 新築)	『鳳凰樓上樑文』
1842.03	대웅전, 봉황루, 명부전 등 중수	『鳳凰樓上樑文』



<그림 1> 1750년경 「海東地圖」의 恩津縣 雙溪寺



<그림 2> 1874년경 『忠清道邑誌』의 佛明山 雙溪寺

### 2.1.2 근대 이후 쌍계사

이 밖에도 사찰에서 나온 상량문에 따르면, 1932년 5월에는 명부전과 산신각, 寮廡를 중수하고, 羅漢殿을 새로 지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작업은 淸菴과 金閔煥 등이 주관하였다. 그리고 1941년 7월의 「重修上樑文」에 의하면, 봉황루의 규모를 7칸에서 일부 축소하여 중수하였다. 당시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주지 普賢, 供司 尹相學, 시주 金基萬 등 4명, 연화질로 折木片手 徐基澤 등 6명, 冶匠 姜明熙, 부역 3명 등 총 17명이 참여하였다.

이후 1975년에도 鳳凰樓가 재차 수리되는 등 1970년대 이후 사찰에서 확인되는 중수 기록만 10여 차례가 넘는다. 이와 같은 사찰의 지속적인 보수 활동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사찰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 2.2 사찰의 출판 배경 및 서적 간행

사찰에서 출판이 진행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중 경진이나 서적에 대한 수요는 가장 우선되는 전제 요건이 된다. 이후 실제 출판 활동을 달성하기 위한 인력과 물자의 조달, 그리고 종이와 먹 등 재료를 구하거나 간행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급여로써 財源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요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사찰의 출판 활동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바꾸어 얘기하면 사찰의 규모가 영세하다거나 서적의 수요가 크지 않은 경우, 또는 관목이나 종이, 먹 등의 물자나 급여를 조달할 재원이 부족하다면, 사찰의 출판 활동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찰에서 단 한 種의 출판 활동이라도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찰의 규모나 세력 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책에 대한 수요는 물론 인력과 물자, 재화 등 제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는 것으로, 소규모 사찰에서는 쉽게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雙溪寺의 서적 간행 활동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찰에서 16세기 이후 많은 서적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내었다는 것은 결국 寺勢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물론, 고려시대나 鮮初의 사찰 간행 서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간행 활동이 없었다기보다 오랜 시간이 흘러 간행 서적이 확인되지 않는 탓으로 보인다.

요컨대, 쌍계사의 사찰 간행 활동의 이면에는 사찰의 규모가 방대하고 재정이 든든하였다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배경적인 요소가 된다. 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사찰의 규모와 재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헌이나 기록은 없다 하더라도, 융성한 사찰의 정황을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 다소간 전하고 있다.

일례로 앞서 약술한 1605년 대웅전의 중수 및 삼세불 조성시의 『造成發願文』을 살펴보더라도, 중수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54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중에는 대시주 19명과 시주 119명, 불상 제작 장인 6명 등 일반인을 제외하고, 참여한 승려들의 명단만 보더라도 50여 명에 달하고 있으니, 사찰의 재력이나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인력 동원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1738년 尹恕教가 지은 쌍계사 『恩津雙溪寺重創記』에서도 1736년 11월에 발생한 화재로 堂殿 5-6백 칸이 여지없이 불탔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사찰의 규모를 가장 근접하게 알려주는 기록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사찰의 재정적 기반이나 지원이 든든하였던 정황 또한 이 발원문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당시 대응전이 소실되어 마음을 같이하여 주위에서 돈과 재물을 바쳤는데, 금과 토지를 앞다투어 기부하였고 그 액수는 이내 8-9百緡이 되었던 사실<sup>16)</sup>을 적고 있다. 이 중창기 기록에서는 사찰의 대부분이 불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채 2년이 되지 않아 중수가 마무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록 또한 곧 사찰의 규모와 인력 조달 및 재력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당시 사찰의 중수 이후 사세는 곧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18세기 중엽 1741년 鳳凰樓를 중수한 기록에 따르면, 중수 당시 승려 65명과 일반인 3명 등이 참여하고 있어서 18세기까지도 寺勢는 興隆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쌍계사 출판 활동의 배경적 요소로 두 번째는 사찰이 위치한 자연 환경적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雙溪寺가 위치한 은진과 논산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의미한다. 은진 지역은 바다와 육지 사이에 위치하여 금강 남안의 평야 가운데에서 하나의 큰 도회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는 소금과 새우젓의 거래가 유명하였고, 은진의 江景浦는 은진현의 세곡이 수납되어 보관되었던 창고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강경 상류의 군현에서 세곡을 실고 오는 배는 반드시 강경을 경유하게 되어 있었다. 결국 은진과 논산 지역은 풍부한 곡창 지대로 금강의 뱃길과 호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곳에 위치한 쌍계사는 농민과 상인들의 시주가 끊이지 않는 부유한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인근 지역 공주 岬寺나 麻谷寺, 瑞山 普願寺 등 주변 사찰의 왕성한 출판 활동과 사찰간 교류도 쌍계사의 출판 활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의 인적 물적 공유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실제 간행 참여자의 기록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바, 16세기 쌍계사에서 판각활동을 한 崇悟는 같은 시기 瑞山 普願寺에서 판각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sup>17)</sup>되었고, 더불어 17세기 쌍계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元悟 또한 익산, 남원 등지에서 활동한 이력<sup>18)</sup>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황과 출판의 배경적인 요소들이 잘 갖추어진 쌍계사에서는 16세기부터 본격적인 불서 간행 활동을 시작하였다. 1565년 『高峯和尚禪要』를 필두로 16세기에만 14회에 달하는 불서 간역 사업을 이루어 내었다. 이러한 왕성한 출판 활동은 사찰의 인적, 재정적인 후원이나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사찰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출판 활동은 화재로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지는 18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으니, 사찰의 출판 활동과 사찰의 재정적인 기반이나 寺勢의 부침은 서적의 간행 빈도와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 1738년 寫『恩津雙溪寺重創記』, ‘… 感隨其力之所及而爭效錢財焉 / 或有多至百金者亦有以土田施者凡爲錢幾八九百 / 緡又廣募功德而鳩聚財力以其年二月某日 / 始役先成僧禪兩堂 …’

17) 임윤수, “충청도 서산 지역 사찰의 책판 제작 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76집(2018. 12), 207.

18) 최선일, “남원 선원사 木造地藏菩薩三尊像과 조각승 元悟,” 『미술사학』 제27호(2013. 8), 251.

### 3. 간행 불서의 현황

#### 3.1 간행 현황

이 장에서는 각종 문헌 및 서지 자료, 소장처의 목록 등에서 확인되는 恩津 雙溪寺 간행 불서의 현황을 개관하여 보았다. 후속 작업으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고서 소장처에서 확인되는 쌍계사판 목록을 조사하고, 접근 가능한 자료들은 실사하였다. 이에 쌍계사에서 직접 관각되었거나 간기에서 쌍계사가 언급된 쌍계사 관련 불서의 전체 현황을 밝히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소장처의 雙溪寺版 불서 현황

연번	연도	서명	소장처	비고
1	1565.秋	『高峯和尚禪要』 1책 (完)	규장각, 동국대	雙溪寺開板
2	1566.03	『大慧普覺禪師書』 1책 (完)	하버드엔칭도서관	雙溪寺開板
3	1567.03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책 (缺)	규장각, 연세대	雙溪寺留板
4	[1567]	『誠初心學人文』 (未詳)	미상 <sup>19)</sup>	.
5	1568.02	『蒙山和尚六道普說』 1책 (完)	한중연	雙溪寺開板
6	1569.02	『月印釋譜 卷21』 (零本 1책, 缺)	규장각, 연세대 등	白介萬家授刻以傳雙溪寺留置
7	1569.10	『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啓請』 1책 (完)	동국대, 규장각	雙溪寺開板
8	1571.01	『天地冥陽水陸齋義纂要』 1책 (完)	단국대	雙溪寺開板
9	1571.06	『佛祖三經』 1책 (完)	하버드엔칭, 연세대	豆叱材豆來永貞家開刻移傳雙溪寺
10	[1572]	『誠初心學人文』 (附 發心修行章) 1책	[山氣文庫]	.
11	1572.02	『禪宗永嘉集』 1책 (完)	고려대, 동국대	金論番家刻移于恩津土雙溪寺
12	1573.02	『妙法蓮華經 卷2-3』 2권 1책 (缺)	법주사	舒川丁芑屎家開移傳 雙溪寺
13	1574.0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책 (缺)	경북대	雙溪寺開板
14	1580.04	『北斗七星供養文』 1권 (缺)	岬寺	雙溪寺刊
15	1614.04	『景德傳燈錄』 30권 10책 (完)	국립중앙도서관	雙溪寺開板
16	1614.06	『緇門警訓』 2권 2책 (完)	전남대, 개인소장	雙溪寺開板
17	1634.08	『五大眞言』 1책 (完)	규장각, 경북대	雙溪寺重刊
18	1635.02	『妙法蓮華經』 1책 (缺)	과계사	雙溪重刊
19	1660.02	『妙法蓮華經』 7권 6책 (完)	경북대	雙溪寺重刊
20	1681.03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책 (完)	동국대	雙溪寺開板
21	1760.05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2책 (完)	규장각	雙溪寺板殿刊

19) 박상국(전국사찰소장목판집, p.210)과 송일기의 전계 논문(鷄龍山 岬寺 所藏의 <父母恩重經諺解> 雙鷄寺 經板, p.147)에서 모두 雙溪寺版으로 밝히고 있으나, 실물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선행 연구자들이 쌍계사판으로 밝힌 일부 인본들 중에는 같은 해에 판각된 동일 경전을 다른 판본으로 구분<sup>20</sup>하기도 하였고, 사찰명이 동일한 지리산 河東의 쌍계사나 전라도 羅州의 쌍계사 또는 星州 쌍계사 판본이 포함되기도 하는 등 오류가 드러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恩津 불명산 쌍계사에서 판각된 기록이나 간기가 명확히 특정되는 자료만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명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雙溪寺刊’이라고 밝힌 판본의 경우, 은진 쌍계사판으로 확정짓기 특정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시기 같은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의 간행 참여자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된 후 판각처를 단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2 전존본의 특징

이 절에서는 쌍계사판 간행서의 특징 및 판본에 새겨진 주요 기록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한 實査를 원칙으로 세웠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序跋의 간행 기록만 전하거나 서지사항만 전하는 등 실물의 소재지를 알 수 없어 판본 조사가 불가능한 자료들이 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제외하고 雙溪寺版으로 알려진 21종 가운데 19종은 인본을 조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이어 기술할 전존본의 서지 및 간행 관련 기록의 검토에서는 실물이 확인되는 雙溪寺版 간본 19종을 간행된 시기 순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판각된 개별 경전의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序跋이나 간행 참여자 등 雙溪寺版에만 새겨진 기록을 위주로 검토하겠다.

#### 3.2.1 『高峯和尚禪要』 1책 (完, 1565년 秋)

高峰和尚禪要 / 原妙 著 ; 持正 譯 ; 洪喬祖 編, 木板本(初刊).

恩津 : 雙溪寺, 明宗 20(1565)刊

1冊(53張) : 四周單邊 半郭 19.0 x 12.5 cm, 無界, 8行18字, 上下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26.0 x 16.8 cm

序 : 至元甲子(1354)…洪喬祖(元)謹書

跋 : 至元甲子(1354)…朱穎遠(元)謹跋

刊記 : 嘉靖44年乙丑(1565)秋清洪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板]

이 판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DR219.7 원36ㄱ사2)이다. 본문의 내용은 禪 수행의 요령을 간추려서 설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전문강원의 중등과정인 四集科의 교재 중 하나였다.

이 판은 판심에 上下大黑口를 선명하게 새긴 점과 판심체를 ‘要’로 판각한 것, 권수에 원나라 洪喬祖와 朱穎遠의 原序와 跋을 편성하였다. 본문은 8행 18자본으로 본문의 사이사이에 내용을 읽은 흔적으로 약체 구결이 묵서되어 있다. 당시 새겨진 初刊 목판은 현재까지 공주 岬寺에 12판이

<sup>20</sup> 이를테면 1571년 간행된 『佛祖三經』과 『佛說四十二章經』을 두 차례의 판각 활동으로 보거나, 干支 산정의 오류로 한 경전의 판각 사례를 중복 간행으로 간주함.

낙질로 남아 있다. 쌍계사관은 권말 제49장에 간기 및 간행 참여자의 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권말제에 이어 ‘主上三殿壽萬歲’라는 발원 문구를 追刻한 것으로 미루어, 표면적으로는 주상과 왕비, 大殿, 中宮殿의 안녕을 기원하며 판각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主上三殿壽萬歲 /  
嘉靖四十四年乙丑秋清洪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板 /  
仁允 / 云修 / 惠崇 / 敏宗 / 慧堅 / 寶敬 / 學敬 /  
思敬 / 印正 / 守眉 / 湛修 / 信雄 / 法連 / 靈淳 / 妙心 /  
圓明 / 玉春 / 二月 / 惠正 / 云修 / 妙雄 / 敬連 / 德海 /  
大施主 / 吳貴千 兩主 / 文石 兩主 / 高萬白 兩主 / 朴元亨 兩主 / 盧破回 兩主 /  
徐自恩 兩主 / 朴順文 兩主 / 咸八孫 兩主 / 高豆他非 兩主 / 吳石伊 兩主 / 大施主 /  
幹善 幸云 / 供養主 連朴 / 惠淳 / 金允希 兩主 / 朴立汀 兩主 / 劉漢同 兩主 /  
徐億水 兩主 / 金德孫 靈駕 / 今德 / 順福 /

### 3.2.2 『大慧普覺禪師書』(1冊 完, 1566년 3월)

大慧普覺禪師書 / [宗杲 撰] ; 慧然 錄 ; 黃文昌 重編, 木板本.  
恩津 : 雙溪寺, 明宗 21(1566)  
1冊(116張) : 四周單邊 半郭 19.5 x 14.4 cm, 無界, 10行17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7.7 x 19.4 cm  
刊記 : 嘉靖四十五年(1566)…恩津雙溪寺開板

이 관은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에 소장(TK1880.3-3968.5)되어 있다. 본문은 송나라의 大慧 宗杲(1089-1163)가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쌍계사에서 간행된 『高峯和尚禪要』와 더불어 불교 전문강원의 중등과정인 四集科의 교재 중 하나였다.

본문의 형식은 10행 17자로 판심의 아래위에는 대흑구가 선명하고, 판심제는 ‘書’로 새겨두었다. 권말에 중국 간행 당시 새긴 12세기 ‘妙喜庵 刊行識文’과 韓山府院君 牧隱 李穡(1328-1396)의 발문이 편성된 것은 다른 판본들과 동일하다. 권말의 간기에 이은 발원 문구로 ‘聖壽無窮 / 法界有情 / 國泰民安’이라 새겨두어, 임금의 장수와 나라의 평안, 佛法의 暢達을 기원하며 판각하였다. 이때 판각된 목판은 현재까지 공주 岬寺에 29판이 낙질로 남아 있다.

李穡의 발문에 이어 본문 제117장에는 간기 및 간행 참여자의 기록을 새겨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嘉靖四十五年丙寅三月月清洪道恩津地佛 / [名]山雙溪寺開板 /  
聖壽無窮 / 法界有情 / 國泰民安 / 同訂仙果 /  
【施主者 名單 (75人)】  
鍊板 信雄 / 刻手 思淳 / 智軒 / 徹庵 /  
供養主 思敬 / 化士 德海 /

### 3.2.3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1冊 缺, 1567년 3월)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編者未詳], 木版本.

恩津 : 雙溪寺, 明宗 22(1567).

1冊(23張) : 匡郭 變相圖. 四周單邊, 半葉匡郭:19.8×14.6cm,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版心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7.2×19.5cm

表紙書名 : 恩重經, 版心書名:恩

刊記 卷末 : 大施主朴順文[等]. 隆慶元年(1567)三月日 忠清道恩津地 佛名山雙溪寺留板

이 판은 서울대학교 규장각(가람古 294.34-B872e)에 소장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은 부모의 은혜를 설하고, 그 보답 방법을 제시한 불교 경전이다. 판각 형식은 한문 본문이 한 단락 나오고 이어 한 칸 내려서 그 부분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 한 단락 나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가 군데군데 삽입되어 있다. 당시 새겨진 초간 목판은 현재까지 공주 岬寺에 5판이 낙질로 남아 있다.

본문의 내용은 제26장에서 마무리되었고, 제27장에는 간기와 발원문구 및 간행 참여자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쌍계사판의 본문에서 누락된 일부 내용은 비슷한 시기 간행된 다른 판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전의 발원 문구로 ‘聖躬萬代 / 國界安寧 / 萬類群旨 / 同生淨土之願’이라 새겨서, 사찰에서 간행되는 모든 서적은 실제 사찰의 필요성에 의하여 간행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이 문구와 같이 임금의 장수와 나라의 평안, 그리고 불자들의 정토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행한 사실을 밝혀두었다.

隆慶元年三月日清洪道恩津地佛[名] / 山雙溪寺留板 /

聖躬萬代 國界安寧 萬類群旨 同生淨 /

土之願 /

[施主者 名單 (35人)]

刻秩 / 智軒 / 惠淳 / 徹庵 / 供養主 正秀 / 姜莫山 兩主 /

化士秩 印正 /

### 3.2.4 『誠初心學人文』(未詳, [1567])

이 판에 대하여 박상국(전국사찰소장목록집, p.210)과 송일기(전계논문, p.147)는 모두 1567년의 雙溪寺版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판본의 소장처는 물론, 소재를 알 수 없어 관련 기록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였다. 두 문헌 모두 간기의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며, 『誠初心學人文』을 다룬 제 연구들에서도 이 1567년 쌍계사판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 3.2.5 『蒙山和尚六道普說』(1冊 完, 1568년 2월)

蒙山和尚六道普說 / [德異 說. 木版本]

[恩津 : 雙溪寺, 1568刊]

不分卷 1冊 : 四周單邊, 半郭19.5×13.5m, 6行13字, 上下黑口, 黑魚尾 ; 29.1×17.5m

[表題 : 蒙山和尚六道普說]

[刊記 : 隆慶二十年二月日 忠清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板]

이 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장서각-014030)이다. 판각 형식은 판심에 上下大黑口가 선명하고, 판심제는 '普'로 새겼다. 본문은 6행 13자의 大字로 판각하였고, 사이사이에 문장을 읽은 기록인 약체 구결이 묵서되어 있다. 본문의 제24장은 권말에 해당하고, 간행 기록 및 참여자 명단을 새겨두었다. 이 판은 별도의 발원 문구를 새기지 않았다. 당시 판각된 경판은 현재 공주 갑사에 1판이 결실된 5판이 낙질로 남아 있다.

隆慶二十年二月日忠清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板 /

供養大施主 韓有實 兩主 / 布施大施主 朴古音山 兩主 /

禹難金 兩主 / 申石連 兩主 / 金千同 兩主 / [助元希 兩主 / 雙溪寺(陰刻)] /

崔貫守 兩主 / 千應巾 兩主 / 石乙金 兩主 /

鍊板 何內 山 兩主 / 刻手 惠淳 比丘 / 正仁 比丘 / 智軒 比丘 /

供養主 海惻 天珠 德海 / 化士 靈云 比丘 /

### 3.2.6 『月印釋譜』卷21(零本 2冊 缺, 1569년 2월)

月印釋譜. 卷21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恩津 : 雙溪寺, 宣祖 2(1569)刻

2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0.7 x 17.2 cm, 有界, 半葉7行16字 註雙行 上下中黑口,  
內向黑魚尾 ; 28.2 x 19.3 cm

表題 : 月印千江曲

刊記 : 隆慶三年己巳(1569)二月 日以傳恩津地佛明山雙溪寺...

이 판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D218.89-세7502-v.21(1-2))이다. 판심에는 대흑구가 아래위로 선명하고, 판심제는 '月', '月印', '月印釋' 등 다양하게 새겼다. 또한 판심의 上魚尾 아래 또는 魚尾 안에는 음각으로 '淳', '淳刀'<sup>21)</sup>나 특이한 모양을 판각하여 각수 표시를 한 것도 눈에 띈다. 이 판은 15세기 중엽 초간된 『月印釋譜』의 重刊版에 해당하고, 당시 새겨진 목판이 현재 공주 갑사에 보물 제582호로 지정되어 46판 낙질로 전하고 있다.

이 쌍계사판에는 권말의 간행 참여자 명단과는 별도로 본문을 새긴 변란의 우측 하단에 板施主로

21) 권말의 각수명에 따르면, 惠淳으로 추정됨.

보이는 명단을 판각해 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張次)

英代 (31) / 李笠 兩主(43) / 全僅乞 兩主(51) / 萬月 兩主(63) / 李看仁 兩主(65) /  
白戾蒙 兩主(69) / 李文長 兩主(74) / 李德水 兩主 (79) / 金加邑孫 兩主(86) /  
朱甘丁 兩主(87) / 대시쥬 백개만량쥬(102) / 金同 兩主(122) / 姜叔只 兩主(124) /  
文之舍堂(135) / 莫金 兩主(144) / 失夢 兩主(150) / 宋介兩 兩主(154) / 金半孫 兩主(160) /  
僅德只(162) / 金仁乞里 兩主(169) / 長木叱金 兩主(172) / 姜進 兩主(174) /  
金莫全 兩主(175) / 金長水 兩主(179) / 長孫 兩主(183) / 金莫同 兩主(194) /  
朴高同 兩主(212) / 李民伊 兩[主](214) / 朴直金 兩[主](218) /

그리고 본문의 제222장 제5행에는 ‘釋譜詳節第二十一’이라는 권말제에 이어 小字雙行으로 ‘總二百二十二張’이라 새겨두어, 전체 222장 분량을 판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연이은 제223장은 간기면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간행 기록 및 참여자 명단을 새겨 두었다.

隆慶三年己巳二月日忠清道韓山地竹山 /  
里白介萬家授刻以傳恩津地佛明山雙溪 /  
寺留置 /  
願以此切德 / 普及於一切 / 我等與衆生 / 皆共成佛道 /  
主上殿下壽萬歲 / 王妃殿下壽千秋 / 王大妃殿下壽萬歲 /  
【施主者 名單 (95人)】  
鍊板 印正 / 刻手 道軒 智軒 妙庵 惠淳 / 供養主 天雙 天住 靈駕 彥信 /  
別座 靈敏 / 助緣大化主 黃銀山 兩主 / 幹善大化主 靈元 比丘 /

이상과 같은 간행 기록에 따르면, 이 『月印釋譜』판의 간행을 발원하게 된 것은 白介萬이 판을 새기는 공덕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포함한 여러 중생들이 佛道를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주상과 왕비, 왕대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한 결과물로 忠清道 寒山<sup>22)</sup>의 白介萬이 재화와 장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각한 뒤에 쌍계사에 판을 留置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간기에 이와 같은 판각 상황을 새긴다는 것은 실제 판목의 보관을 이미 쌍계사로 염두에 두고 간역을 시작하였으며, 판각 작업도 쌍계사에서 병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이 『月印釋譜』판의 판각을 주도한 白介萬은 간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板施主로 본문을 새긴 판에 별도로 이름을 새겼다. 또한 권말의 간행 참여자 명단에도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는 등 이 판의 간행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月印釋譜』의 나머지 권차가 당시 白介萬 집안에서 새겨진 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전존 간본이나 판목이 전무한 것으로 미루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무엇보다 『月印釋譜』전질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한 시간과 막대한 간행 비용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白介萬이 권21만을 판각한 이유도 현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연장선 상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

22) 지금의 충남 舒川郡 寒山面으로 불명산 쌍계사와는 강건너 남서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함.

3.2.7 『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特成就陀羅尼啓請』  
(1冊 完, 1569년 10월)

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特成就陀羅尼啓請 / 不空(唐, 705-774)譯.  
木板本, 恩津 : 雙溪寺, 宣祖2(1569)刊, [1900年代後刷].  
不分卷1冊(29張) : 四周單邊, 半郭 25 x 15 cm, 無界, 半葉 7行15字, 上下中黑口,  
內向黑魚尾; 29.3 x 20.8 cm.  
表題 : 隨求呪, 版心題: 隨求  
刊記 : 隆慶三年己巳(1569)孟冬日忠清道恩津地佛名山雙溪寺

이 판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D 213.19 수17사)이다. 본문에 새겨진 내용은 구하는 바를 즉시 얻는다는 의미를 지닌 밀교 다라니의 일종이다. 판심제는 본문의 내용에 따라 앞의 제26장까지는 ‘隨求’로 새기고, 제27장 이하 『佛頂尊勝陀羅尼』 부분은 ‘千手’로 새겼다. 본문의 모든 다라니들을 大字의 한글로 새긴 점이 특기할 만하며, 한문에는 현토를 달아놓았다. 판심에는 上下大黑口가 선명하며, 일부 張에서는 아래 흑구에 새긴 사람의 표시로 보이는 일정한 무늬<sup>23)</sup>를 새겨두었다. 전체 29장 가운데 아래 흑구에 동일한 부호가 7장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참여한 각수 4명 중 한 명이 7판을 새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다라니를 새긴 책판은 현재 공주 감사에 1권이 누락된 28장 분량 7판이 낙질로 소장되어 있다.

제29장으로 본문의 내용은 마무리되고, 연이어 간기와 간행 참여자의 명단을 새겨두었다. 발원문 구로 첫 행에 ‘聖軀萬歲’라 새긴 것으로 보아, 부처님의 만세를 기원하면서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聖軀萬歲 /  
秋世文 兩主 / 金世毘 兩主 / 金加應之 兩主 / 陳彥弘 兩主 /  
云德 兩主 / 鄭莫同 兩主 / 劉不山 兩主 / 金世順 兩主 / 金世必 兩主 /  
朴松文 兩主 / 智海 鄭石只 兩主 / 曹石貞 兩主 / 姜夫叱孫 兩主 /  
鍊板大施主 智軒 / 末醬施主 幸根 / 金永春 / 金億丈 / 金幸小 / 尹弘仁 /  
鄭所回 兩主 / 鄭馬伊同 兩主 / 姜挨知 兩主 / 金貴仁 兩主 / 孫央斤乃 兩主 /  
成粉孫 兩主 / 金億孫 / 金億水 / 文三孫 / 一峻 / 信眉 / 覺田 / 覺明 / 濟玄 /  
刻手秩 道軒 智軒 慧淳 妙庵 / 飯頭 信梅 / 化土 大顯 /  
隆慶三年己巳孟冬日忠清道恩津地佛名山雙溪寺 /

3.2.8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冊 完, 1571년 01월)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 [編者未詳]. 木板本.  
[恩津] : [雙溪寺], [1571].  
線裝 65張 : 四周單邊 半郭 28.2 x 21.6cm, 有界, 7行17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7.9x 26.0 cm.

23) 글자를 새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판각한 각수만 식별할 수 있는 부호로 보임.

表題：中禮  
刊記：隆慶五辛未(1571)正月日 忠清道恩津地雙溪寺開板  
卷末：乾隆十二丁卯(1747)二月日公州普門寺 / 禪源行師傅有萬境庵[墨書記]

이 판본은 단국대학교 울곡도서관 소장본(고 217.51 천314)이다. 이 책의 권말에는 ‘乾隆十二年丁卯二月日公州普門寺’라는 문구와 ‘禪源行師傅有萬境庵’이라는 목서 기록이 있어 판본의 소장처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판각 형식면에서 黑口와 魚尾는 일정치 않으며, 판심의 아랫부분에만 黑口가 있는 경우 각수의 표시가 드러나기도 한다. 본문은 7행 17자의 大字本으로, 판심의 제목은 ‘中’으로 새겼다. 본문은 제65장으로 마무리되었고, 제65장의 우측면에는 간기와 총47명의 간행 참여자 명단을 새겨두었으며, 별도의 跋文이나 發願 文句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 새겨진 목판은 현재 공주 寶藏閣에 9권이 낙질로 소장되어 있다.

施主 道軒 / 吳山同 兩主 / 鄭加同 兩主 / 鄭毛知 兩主 / 金元 兩主 /  
劉永水 兩主 / 李末叱致 兩主 / 粉今 保體 / 順今 德老 / 白永必 兩主 /  
熙敬 / 寶敬 / 云水 / 惠見 / 惠正 / 祖禪 / 道仁 / 妙雄 / 尙玄 / 智行 /  
省進 / 印還 / 玄默 / 空印 / 學敬 / 三印 / 釋岑 / 法連 / 釋心 / 信雄 /  
印朱 / 惠還 / 法熙 / 熙覺 / 令默 / 玄寬 / 信眉 / 法根 / 熙晶 /  
刻手秩 道軒 智軒 印罔 太田 / 供養主 能祖 仁會 / 化士 山衲 修眉 /  
隆慶五辛未正月日 忠清道恩津地雙溪寺開板 /

### 3.2.9 『佛祖三經』(1冊 完, 1571년 6월)

[佛祖三經]佛說四十二章經 / 迦葉摩騰, 竺法蘭 同譯; 守遂 註, 木板本  
恩津：雙溪寺, 宣祖 4(1571), [後刷]  
1冊：四周單邊 半郭 18.6 x 14.7 cm, 無界, 9行15字 註雙行, 小黑口,  
上下向黑魚尾; 32.4 x 22.4 cm  
刊記：隆慶五年辛未(1571)六月日全羅道益山地豆叱材豆來永貞家開刻移傳忠清道恩津地佛  
明山雙溪寺在置

이 판은 하버드 언칭도서관 소장본(TK1824-6410)이다. 다만, 언칭도서관 소장판은 『佛說四十二章經』과 『佛遺教經』 부분만을 합각하여 후쇄한 것이다. 『滄山警策』이 합철되어 본문의 내용이 온전한 41장 분량의 『佛祖三經』 판본이 연세대, 영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판본들도 모두 같은 판으로 인출되었고, 간행 기록은 모두 『佛說四十二章經』의 제14장에 새겨져 있다. 판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에 따라 ‘四十’, ‘遺’, ‘山’으로 새겼다.

당시 『佛祖三經』을 새긴 목판 중 『佛說四十二章經』 부분은 현재 해인사의 板殿에 8권이 온전하게 소장되어 있고, 『滄山警策』을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판은 공주 감사에 1판 낙질이 소장되어

있다. 감사 소장 책판 『瀟山警策』은 책판 조사 시 현존하는 판본과 행자수가 일치하는 것은 물론, 광곽의 크기 등 판형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1571년 쌍계사에 在置하였던 책판으로 여겨진다.

한편, 본문은 제14장으로 『佛說四十二章經』 부분이 마무리되었고, 연이어 간행 기록 및 참여자 명단을 밝혀 두었다. 발원 문구로 제14장 간기면의 마지막 행에 ‘主上三殿下萬世’라고 새겨두어, 왕을 비롯하여 大殿, 中宮殿, 王大妃殿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隆慶五年辛未六月日全羅道益山地 /  
豆叱材豆永貞家開刻移傳忠清道恩 /  
津地佛明山雙溪寺在置 /  
鍊板大施主 銀聶 / 供養大施主 金世必 / 得補 兩主 / 金得千伊 兩主 /  
金得孫伊 兩主 / 白介萬 兩主 / 分月 / 長頓一 / 金得唱 兩主 / 朴翁丈 兩主 /  
李語受 兩主 /  
鍊板 印正 / 刻字 正印 恩補 守衍 [正印]<sup>24)</sup> / 化土 看熙 /

이상의 간행 기록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1571년 6월에 豆叱材, 豆永貞 집안에서 새긴 판을 비교적 거리가 있는 은진의 쌍계사에 在置하였다는 점이다. 더불어 2년전에 판각된 『月印釋譜』의 간행을 주도한 ‘白介萬’이 시주로 등장하는 점과 당시 鍊板을 담당한 ‘印正’이 동일역으로 참여한 사실도 눈에 띈다. 이로 미루어 白介萬과 豆氏 집안과의 관련성과 두 집안 모두 독실한 불도 신자였을 가능성 등 다양한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새기는 경관에 이와 같은 간행 정황을 판각한다는 것은 다분히 刻工이나 기술자들이 쌍계사와 인연이 깊은 豆氏 집안에 보내어져 간역의 작업을 완료하고, 경관은 간역 직후 보존 시설이 갖춰진 쌍계사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쇄 기술자들의 명단이 일부 겹친다는 것과 사찰의 판각 환경이 私家보다 용이하다는 점에서, 재원 조달과는 별도로 사찰에서 판각이 병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2.10 『誠初心學人文』(附 『發心修行章』 1冊, 1572년)

이 판에 대하여 박상국<sup>25)</sup>과 송일기는 은진 쌍계사판<sup>26)</sup>으로 밝히고 있으나, 실물 자료 및 소장처나 구체적인 간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박상국은 李謙魯의 山氣文庫 소장이라 하였으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4) 陰刻.

25) 『전국사찰소장목판집(1987)』, p.476에 따르면, ‘隆慶六年丁卯佛明山雙溪寺開板’이라 되어 있다.

26) 송일기(2005), 147.

### 3.2.11 『禪宗永嘉集』(1冊 完, 1572년 02월)

禪宗永嘉集/ 玄覺 撰 ; 淨源 修定科 ; 行靖(宋) 註 ; 得通(朝鮮) 說誼 ; 惠淳(朝鮮) 刻, 木板本  
[林川 : 金論番, 宣祖5(1572).]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8.0 x 13.7 cm, 有界, 11行19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1-2葉花紋魚尾 ; 24.0 x 17.0 cm.

序 : 得通述

跋 : 嘉靖壬子(1552)春二月上澗五峯山人松月堂逸愚謹跋

刊記 : 隆慶八年壬申(1572)二月日林川土金論番家刻移于恩津土雙溪寺留板

이 판은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소장본(만송 貴 62A)이다. 이 판의 권말에 수록된 嘉靖 壬子年의 逸愚 발문은 1568년 福泉寺版 등 이 시기 새겨진 다른 판본에도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쌍계사 판의 판심에는 아래위 大黑口가 선명하고, 逸愚의 발문을 새긴 면과 간행 참여자를 새긴 면의 판심에는 제목을 ‘永’으로 새겼고, 나머지 판들의 판심제는 모두 ‘永嘉集’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 권말의 간행 참여자 기록과 별도로 본문의 변란 우측 하단에는 板施主로 여겨지는 시주자 명단을 새겨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上卷] (張次)

萬月捨堂(9) / 李栢ㄱ文 (11) / 崔萬金(13) /  
金海(15) / 朴只氏(18) / 裊得石(19) / 朴古音孫(24) /  
朴莫同(25) / 寶老未(36) / 伸德(40)

[下卷]

目ㄱ攝非 兩主(8) / 金萬朴 兩主(13) / 口音德 (15) /  
金億同(17) / 秋孟丁 兩主(19) / 器石[ ](21) /  
春德只(33) / 鄭國只 兩主(36) / 萬今(37) / 李文(39) /

한편, 본문은 하권 제48장으로 마무리되었고, 연이은 두 장에는 逸愚의 跋文과 64명의 간행 참여자 기록을 새겨 두었다. 이 쌍계사판에는 별도의 발원 문구로 간기행 앞에 ‘主上殿下壽萬歲’라는 문구를 새겨두어,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였다.

[施主者 名單(39人)]

刻手秩 惠淳 德海 空默 / 鍊板 印正 /  
供養主 德云 玄正 豆只 北非 今錢 進仞 李萬春 者叱德 申勿金 智非下今 李世永  
林希達 金栗孫 /  
鍊板大施主 張孫 兩主 / 鍊板大施主 張石 兩主 /  
主上殿下壽萬歲 /  
化主 性熙 兼 化大施主 億非 /  
隆慶八年壬申二月日林川土金論番家刻 /  
移于恩津土雙溪寺留板 /

이상의 간행 기록과 같이 쌍계사와 그리 멀지 않은 충남 부여 근처 林川의 金論番 집안에서 새긴 판을 쌍계사로 옮겨와 한동안 판본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술한 판본들의 간행 정황과 같이 金論番 집안<sup>27)</sup>에서는 주로 재화와 판각 장소를 제공하였을 것이고, 인력의 상당수는 쌍계사에서 충당되었으며, 판의 보관 또한 쌍계사를 염두에 두고 刊役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간기면의 내용과 판본에서의 편철 위치는 대개 하권의 말미에 첨부되었으나, 異本에 따라 上卷의 말미에 첨부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본문의 上卷 제35장, 제36장 등 上黑口에 음각으로 ‘空’이라고 새겨진 판들이 다소 보이는데, 이는 권말에 새겨진 惠淳, 德海, 空默의 세 명 각수 가운데 ‘空默’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새겨진 『禪宗永嘉集』 책판은 현재 합천 해인사에 45판이 낙질로 남아 전하고 있다.

### 3.2.12 『妙法蓮華經』(1冊 缺, 1573년 02월)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 奉勅 譯, 木板本

[恩津 : 雙溪寺, 1573]

線裝 2卷1冊(권2-3) : 四周單邊 半郭 24.5 x 16.3 cm, 無界, 半葉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1.8 x 20.7 cm

刊記 : 萬曆元年歲在癸酉(1573)仲春日念 / 忠清道舒川南面鷄山趙貴唱丁芑屎家開

移傳恩津土佛明山雙寺留板

이 판은 보은 속리산 법주사 소장본(法住寺 53)이다. 판본은 형태면에서 초주갑인자를 번각한 계열로, 은진 쌍계사에서는 『妙法蓮華經』이 이 판을 바탕으로 두 차례 더 간행되었다.

본문의 판심 아래 어미에는 ‘シ’와 ‘卍’, ‘犬’ 등 일정한 문양이나 글자가 새겨진 판이 여러 장 드러나므로, 이는 판을 새긴 각수 표시로 추정된다. 다만, 법주사 소장본도 완전하지 않아 권2의 제30장부터 권3의 제68장까지 남아 있으며, 이를 후대에 다시 제본하였다.

당시 새겨진 초간 목판과 1635년, 1660년 중간판<sup>28)</sup>의 일부가 현재 해인사에 257판이 남아 있고, 판각 시기는 다르더라도 완질을 갖추었다. 해인사에서는 이 판으로 20세기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인경하였고, 전존 판본이 경북대 등 일부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다만, 법주사 소장본은 초간본에 해당하고, 법주사 소장본과 1635년, 1660년 은진 쌍계사에서 간행한 판본을 비교해보면, 후대에 간행된 두 판은 판하본을 다시 쓴 重刊이라기보다 補刻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1660년까지 은진 쌍계사에는 『妙法蓮華經』 경판이 소장되어 있었고, 일부는 일실되었던 바, 이를 1635년과

27) 權門勢家は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관찬 사료의 기록이나 집안 관련 내용이 조사되지 않는다.

28) 엄밀한 의미에서는 판하본을 다시 써서 새롭게 전질을 간행한 것이 아닌, 권1 등 일부 결락된 판을 보완하여 帙을 갖추어 새긴 補刻에 해당함.

1660년 두 차례의 補刻을 통해 완전한 질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1573년 쌍계사 留板本의 소장처는 법주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 판을 바탕으로 보각한 뒤 재차 간행한 판본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어서, 초간본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두 補刻本을 면밀히 살펴보면, 초간본의 본문을 비롯하여 간행 기록은 그대로 두었다. 즉, 상당 부분 남아 전하던 初刻 목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보각한 판의 경우 난의 시주자 즉 板施主는 보각 당시 시주자들의 명단을 새겼다.

한편, 이 판에서는 ‘雙溪寺’를 ‘雙寺’로 불리었다는 설이 간기의 기록으로 확인된다. 법주사 소장본 권3의 권말 기록과 누락된 부분은 보각판의 기록을 아울러 검토하면, 1573년 쌍계사 留板本 『妙法蓮華經』의 간행 참여자 기록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권1의 경우 이후 일정 부분 보각이 이루어졌고, 보각시 당대의 시주자 명단을 새긴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板施主 명단은 후술할 1660년 쌍계사판 『妙法蓮華經』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여기서는 初刊시의 기록이 명확한 권3의 권말에 밝힌 간행 참여자 기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권말에 밝힌 발원 문구로 보아, 이 판의 간역 사업은 主上 및 세자의 무병장수와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 그리고 판의 간행과 관련된 모든 幹善, 幹化者들의 隨喜와 복이 미치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롯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제69장 b면]

大王大妃殿下 / [일부 훼손]

主上殿下聖躬萬歲 / 世子邸下鶴齡千秋 / 國泰民安 法輪永轉 /

願諸隨喜人及幹化者生享五福終接九蓮先亡 / 父母經生安養然後願有情午情咸蒙饒益言未開口 /

已前圓丁也茲特土上加泥耳 / 萬曆元年歲在癸酉仲春日念 /

[施主者 名單(47人)]

忠淸道舒川南面鷄山趙貴唱丁芑屎家開移傳恩津土佛明山雙寺留板 /

[제70장 a면]

[施主者 名單 (133人)]

[제70장 b면]

[施主者 名單(92人)]

雕刻秩 / 智軒 / 戒罔 / 五仁 / 空默 / 惠淳 / 道仁 / 戒正 / 道卍 / 僅岑 / 智崇 /

省明 / 道淳 / 玄熙 / 玉下 / 法令 / 玄玉 / 性恩 /

金奧 兩主 / 伸介文 兩主 / 秋希萬 兩主 /

幹化秩 / 化主施主兼供養主 敍還 / 晶學 /

鍊板 印正 / 鍊板 信雄 /

이상의 간기에서 밝힌 趙貴唱과 丁芑屎가 거주하는 충남 舒川 南面은 은진 쌍계사에서 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해 바다에 인접한 곳으로 쌍계사와는 제법 거리가 있다. 두 집안과

쌍계사와의 인연으로 판각 후 쌍계사에 경관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17세기 후반까지 이 경관으로 경전을 지속적으로 인출하였던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판의 기록에 나타난 327명의 간행 참여자 규모나 경전의 분량으로 볼 때, 쌍계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출판 활동 중 1614년 『景德傳燈錄』의 간역과 더불어 비교적 큰 규모의 開板 불사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판각 활동은 이를 주관하고 재원을 조달한 두 가문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趙貴唱과 丁丕屎에 대한 사료의 기록은 찾기 어려우나, 두 집안 모두 독실한 佛徒이자 지역에서 재력가였을 것이라는 정황은 충분히 짐작되고 남는다.

### 3.2.1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冊 缺, 1574년 02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 [編著者未詳], 木板本.

恩律(忠南) : 雙溪寺, 萬曆2 (1574).

1卷1冊 : 四周單邊 半廓 21.4 x 16.5 cm, 無界, 8行字數不定,

上下內向有紋魚尾 ; 34.1 x 24.2 cm.

[刊記 : 萬曆二年甲戌仲春日忠淸 / 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 / 板]

이 판은 경북대학교 도서관 소장본(294.6 수237)이다. 본문의 내용은 수록재의 의식에 필요한 절차를 요약하여 놓은 것으로, 흔히 ‘結手文’으로 불린다. 경북대 소장본은 제30장, 제31장이 결락되어 있다. 당시 쌍계사에서 새겨진 목판은 현재 해인사에 두 판이 결락된 채 23판이 남아 있다. 본문을 새긴 변란 밖 우측 하단에는 시주 명단을 새겨두었다. 난외 시주 명단은 3명으로, ‘功德 尙玄(제10장) / 布施大施主 元惠(제16장) / 孔千水(제19장)’이다. 그 밖에 본문의 제16장이나 제18장 등 일부 張에서는 관심제 아래에 ‘大元 刀’라는 각수 이름을 판각하기도 하였다. 전체 본문 내용은 제49장에서 일단락되고, 제49장 제9행부터는 간행 관련 기록을 새겨 두었다. 이 판은 별도의 발원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제49장 제9행 이하]

萬曆二年甲戌仲春日忠淸 / 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 / 板

供養大施主 信[還] 比丘 / 金永延 兩主 / 孔吉 兩主 / 金潔 兩主 /

高平世 / 高有石 / 李玉丹 / 朴莫同 /

祖禪 / 性林 / 玄玉 / 妙雄 / 道一 / 性祖 /

劉世[寶] / 僅云 / 信還 / 玉能 / 幸正 / 惠英 / 寶正 /

上罔 / 峇衍 / 刻手 大元 / 供養主 敬玉 / 化士 令旭 /

이러한 인원 중 朴莫同, 性林, 玄玉 등 일부는 앞서 1년 전 1573년 『妙法蓮華經』의 간행 시 참여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 3.2.14 『北斗七星供養文』(1冊 缺, 1580년 04월)

北斗七星供養文 / [編著者未詳], 木板本.  
恩律 : 雙溪寺, 萬曆8 (1580).  
1板 : 四周單邊 半廓 18.9 x 24.1 cm, 有無界混在, 7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刊記 : 萬曆八年四月日恩津縣東佛明山雙溪寺刊

이 판으로 찍은 인본은 남아있지 않고, 경전을 새긴 목판이 공주 岬寺에 2판 낙질로 남아 있다. 본문은 북두칠성을 앙망하여 기원하는 내용을 수록하였고, 현존하는 이본에 따르면 경전의 완전한 분량은 20장 내외이다. 다행히 전존하는 경판에는 간행 관련 기록을 새겨두어, 이 판이 1580년 恩津 쌍계사에서 새겨진 사실이 확인된다.

즉, 목판의 말미에 새겨진 기록에 의하면, ‘刊刻 妙庵 空默 / 供司 信寶 彦面 / 萬曆八年四月日恩津縣東佛明山雙溪寺刊’으로 나타난다.

### 3.2.15 『景德傳燈錄』(30권 10冊 完, 1614년 04월)

景德傳燈錄. 卷1-30 / 道原(宋) 著, 木板本  
佛明山 : 雙溪寺, 光海 6(1614)  
30卷10冊 : 四周單邊 半郭 19.2 x 15.2 cm, 12行20字 註雙行,  
無魚尾 ; 27.5 x 18.9 cm  
刊記 : 萬曆四十二年甲寅(1614)四月日公洪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板  
序 : 李穡

이 판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BC古朝21-246)이다. 송나라 승려 道原이 편찬하였으며, 역대 禪宗 祖師들의 어록을 선집하여 法燈을 전한 法系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다.

쌍계사판은 본문에 계선을 새기지 않고, 관심에는 ‘傳燈錄’이라는 제목과 魚尾를 새기지 않은 특징이 있다. 본문을 판각한 변란 밖 우측 하단에는 시주자 명단이 새겨져 있고, 이들의 인원은 433명이다. 경전의 분량이 많은 탓에 400여 명 넘는 시주자들이 협심하여 刊役에 힘을 보탰다. 또한 권말에 드러나는 발원 의도는 주상과 왕비, 세자의 장수를 기원하고, 간행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隨喜를 도모하고자 판각하였다. 그 밖에 간행 참여자나 간행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1 권말 제18장]  
大德 增員 / 大德 守天 / 大德 忠彦 /

[권3 권말 제20장]  
萬曆四十二年甲寅四月日公洪道恩津地佛明 /  
山雙溪寺開板 奉爲 / 主上殿下壽萬世 /

王妃展下壽齊年 / 世子低下壽千秋亦各各結願隨喜施主與緣化比丘 / 等 /  
刻手秩 雙淳 唯仁 善行 呂明 姜京守 隱浩 應元 朴弘起 金敬元 金廣生 /  
鍊板 高龍孫 / 助緣 金堂加叱知 金內ㄱ春 千卜 盧大春 /  
供養主 天承 比丘 起龍 / 大化士 慧慈 比丘 /

[권8 권말 제18장]

[施主者 名單 (15人)]

[권9 권말 제20장]

[施主者 名單 (49人)]

[권10 권말 제25장]

[施主者 名單 (7人)]

[권11 권말 제27장]

萬曆四十二年甲寅四月日公洪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 /  
開板 /

主上殿下壽萬世 / 王妃展下壽齊年 / 歲<sup>29)</sup>子低下壽千秋 /  
大施主 文希 兩主 / 金世 / 文希 / 玆今 / 車福連 / 頓逸 /  
陳漢文 / 金應明 / 金德延 / 訥叱偈 / 粉知 / 崔德詳 / 水永介 /

[권12 권말 제37장]

校 慧遠 天勝 / 施主名單 [39人]

[권16 권말 제29장]

萬曆四十二年甲寅四月日公洪道恩津雙溪開板 /

住持 勝祖 / 前住持 演熙 / 前住持 惟仁 / 持寺 應浩 / 持寺 銀倫 / 三剛 思隱 法根 /  
[施主者 名單 (42人)]

[권18 권말 제29장]

大德 善修 / 玉淨 / 太能 / 忠暉 / 覺性 /

[권26 권말 제36장]

[施主者 名單 (24人)]

이 판의 간역 사업은 쌍계사 출판 활동을 통틀어 가장 방대한 규모의 판각사업이었다. 또한 30권 10책이라는 적지 않은 분량 탓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판본 소장 기관에는 완질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낙질로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조선시대 사찰에서도 『景德傳燈錄』의 간행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간기가 확인되는 판본은 雙溪寺版을 비롯하여, 1536년 지리산 神興寺版, 1550년 表訓寺版, 1568년 法興寺版, 1682년 普賢寺版 정도가 알려져 있다.

29) ‘卍’의 誤刻으로 보임.

당시 새겨진 쌍계사관은 현재 본문을 새긴 경관이 해인사에 411권이 완질로 남아 전하고 있다. 다만, 해인사 소장관에는 보관 도중 일실된 판에 대하여 완전한 질을 갖추기 위하여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번각 형식의 보각을 통한 판의 보충이 이루어졌다. 이 해인사 소장관은 20세기 이후에도 몇 차례 인출이 이루어졌고, 그 인출본이 경북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 3.2.16 『緇門警訓』(2卷 2冊 完, 1614년 06월)

緇門警訓/ 如聿 撰, 木板本.

恩津[論山]: 佛明山雙溪寺, 萬曆 42(1614).

1책(120張): 四周單邊 半郭 19.6 x 14.5 cm, 無界, 11行20字; 30.0 x 18.8cm.

表題: 緇門警訓

刊記: 萬曆四十二年甲寅(1614)六月日公洪道恩津縣佛明山雙溪寺開板

序: 戊午正月初吉三韓國…者謹序

이 판은 전남대학교 도서관(일우OC 3R 여18ㄷ)의 상권 1책 및 개인소장본으로 하권이 전하고 있어 판본의 온전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緇門警訓』의 전존 판본은 현재까지 1524년 大光寺本을 위시하여 17세기말 普賢寺本까지 대략 13종 이상이 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책의 최초 편찬은 원나라 승려 智賢이 역대 고승들의 警訓이나 법어를 모아 찬술하였고, 1470년 명나라 如聿이 續編하였다.

쌍계사관을 찍은 경관은 현재 공주의 갑사에 76권이 낙질로 전하며, 인출본은 전남대학교 도서관과 개인 소장본 등이 전한다. 쌍계사관의 본문은 앞선 16세기 판들에 비해 大黑口가 없어지고, 계선 없이 11행 20자의 촘촘한 배치로 새긴 특징이 있다. 본문의 변란 밖 우측하단에는 시주 명단이 새겨져 있다. 이를 살펴보면,

(張次)

[上卷]

加叱之(3) / 加叱知(4) / 智安(5) / 德均 比丘(10) /  
 戒俊 比丘(11) / 圓應 比丘(12) / 法燈 比丘(13) / 吳後金(陰刻,14) /  
 福只(27) / 玉只(34) / 雪俊(35) / 敬岑(36) / 天德(38) /  
 金內乙[之](陰刻,49) / 海崙(51) / 一勝(52) / 僅玄(61) /  
 大施主 智潤(63) / 李守[ ](65) / 金者竹介(67) / 太允(69) /

[下卷]

善行(1) / 善行(2) / 仁德(3) / 龍守(19) / 天寶(28) /  
 信正(33) / 鄭德己(37) / 金春孫(41) / 金旺丁(42) /  
 白孫同(43) / 李守[ ](49) / 李水卜(50) / 覺海(76) /

그리고 이 판은 발원문구로 주상전하의 만세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고, 佛法이 두루 전하기를 기원하였다. 본문의 제81장의 b면에는 이 판의 간기 및 간행 참여자 명단을 밝혀두었다.

[제81장 b면 제5행 이하]

萬曆四十二年甲寅六月日公洪道恩津縣佛明山雙溪寺開板 /  
 主上殿下壽萬歲 / 國泰民安法輪常轉 /  
 大德 善修 / 大德 燈遠 / 大德 玉淨 / 大德 守天 / 大德 冲敬 / 大德 忠彥 /  
 大德 太能 / 大德 覺性 / 大德 太浩 / 大施主 李守卜 /  
 智罔 / 規混 / 隱悟 / 壁蘭 / 曉僂 / 智准 / 勝祖 / 應浩 / 隱倫 / 法根 / 太允 /  
 印浩 / 天寶 / 大允 / 思隱 / 思俊 / 德宗 / 德云 / 正心 / 沽演 / 寶英 /  
 茂雲 / 光演 / 慧能 / 得全 / 祖印 / 英惠 / 法安 / 雙悅 / 慧遠 / 忠信 / 天勝 /  
 刊刻 雙淳 惟仁 善行 金敬元 信正 隱浩 / 鍊板 高龍孫 / 供養主 加叱知 天印 /  
 化士 慧資 /

### 3.2.17 『五大眞言』(1冊 完, 1634년 08월)

五大眞言 / [編者未詳], 木板本.

[恩津]: [雙溪寺], [仁祖 12(1634)].

1冊(108張): 插圖, 四周雙邊 半郭 17.0 ×12.3 cm, 有界, 8行15字, 上下內向大黑口,  
上下黑魚尾; 27.0 ×18.0 cm

板心題: 五大, 國漢梵對譯, 前部는 勸世音菩薩手眞言

內容: 四十二手眞言, 神妙章句大陀羅尼, 隨求即得陀羅尼, 大佛頂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  
靈驗略抄

[刊記: 崇禎七年甲戌八月日 / 公清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重刊]

이 판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6749)이다. 이 판에 대하여 앞선 연구에서는 『五大眞言』의 본문에 포함된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導大悲心大陀羅尼啓請」, 또는 「靈驗略抄」를 개별 판본으로 보아 2종 또는 3종의 독립된 개별 판각 활동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존본을 조사해보면, 이보다는 판심의 제목이 두 편 모두 ‘五大’로 새겨졌고, 판식도 동일하며 본문의 장차도 연속되게 이어진다. 즉, 앞선 연구에서는 『五大眞言』의 본문에 포함된 편별 명칭을 개별 서명으로 간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앞선 시기 예컨대 16세기 초에 간행된 鐵堀版 『五大眞言』 판본에서도 권수에는 「千手千眼陀羅尼啓請」과 권말에 「靈驗略抄」가 같은 위치에 할당되어 있기도 하다.

결국 내용이 완전한 쌍계사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권수의 「千手千眼陀羅尼啓請」과 권말의 「靈驗略抄」 및 「學祖跋」에 1634년 8월의 간기까지 온전한 『五大眞言』 1책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내용면에서 유사한 주제를 합각한 판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sup>30)</sup>도 일리가 없지 않으나, 여기서는 그보다 『五大眞言』 판본의 편별 구성의 일부로 여기고, 『五大眞言』 「靈驗略抄」<sup>31)</sup>, 『五大眞言』 「千手千眼陀羅尼啓請」과 같은 형식으로 보아, 동일서로 간주하도록 하겠다.

당시 쌍계사에서 중간한 『五大眞言』을 새긴 목판은 현재 합천 해인사에 57판이 완전하게 한

30) 박진술, “조선시대 불서의 습탁 및 습綴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5), 34.

31) 남경란, “『五大眞言』 「靈驗略抄」의 국어학적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3집(1999. 1), 233.

질을 갖추어 남아 전한다. 해인사 소장 목판 중에는 보관 및 판리 과정 중에 누락된 판에 대하여 일부 보각이 이루어졌다. 이 판은 17세기 중엽에 새겨졌음에도 판심에 上下大黑口를 새긴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판심의 上魚尾에는 ‘天’을 음각으로 새긴 판들이 상당수 보이는데, 이는 간행참여자 명단에 따르면 각수 ‘戒天’으로 여겨진다.

이 판은 발원문구나 발문을 따로 보이지 않고, 본문 변란 밖에는 시주자 명단이 새겨져 있어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張次)

崔還 兩主(11) / 劉世 兩主(12) / 柳應生 兩主(15) / 趙禾乙里 兩主(19) /  
比丘 信弘(22) / 許永代 兩主(24) / 尹弘知 兩主(26) / 金氏於叱德 兩主(33) /  
王應南 兩主(24) / 朴彥南 兩主(25) / 李文甲 兩主(27) / 李孝甲 兩主(40) /  
命今 兩主(41) / 李德男 兩主(45) / 任氏莫德 兩主(46) / 金益江 兩主(47) /  
文德承 兩主(48) / 金德龍 兩主(49) / 長七文 兩[主](50) / 朴難福 兩主(51) /  
柳末叱致 兩主(55) / 申貴龍 兩主(56) / 崔順昌 兩主(60) / 金龍 兩主(63) /  
鄭氏仁化伊 兩主(71) / 李得象 兩主(79) / 全左伊同 兩主(81) / 朴莫同 兩主(84) /  
文破回 兩主(87) / 白西訥伊 兩主(91) / 申守眞 兩主(93) / 金彥 兩主(96) /  
金氏德只 兩主(97) / 梁於叱卜 兩主(98) / 李冲旺 兩主(100) / 比丘 一崇(102) /  
任千里 兩主(103) / 申氏一秋 兩主(105) / 李高大 兩主(106) /

그리고 권말의 제108장 學祖 發文에 이어, 제109장에는 간행 참여자 및 간기를 새겨두었다.

金大鳳 / 比丘 德惠 / 奉德 / 大施主 趙丕同 兩主 / 大施主 林永業 兩主 /  
板子大施主 崔只每 兩主 / 布施大施主 王應男 / 大施主 金郁 兩主 /  
助緣 玄覺 比丘 / 刻手 守仁 比丘 戒天 比丘 / 鍊板 學信 比丘 /  
化士 清信 趙啓善 兩主 / 供養主 一勳 比丘 /  
崇禎七年甲戌八月日 / 公清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重刊 /

### 3.2.18 『妙法蓮華經』(1冊 缺, 1635년 02월)

妙法蓮華經 / 九摩羅什 奉勅 譯, 木板本

[恩津 : 雙溪寺, 1635]

線裝 1卷1冊(권1, 77張) : 四周單邊 半郭 24.5 x 16.3 cm, 無界, 半葉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3.3 x 21.7 cm

刊記 : 崇禎八年乙亥(1635)二月日公清道恩津雙溪重刊

이 판은 대구 八公山 把溪寺 소장본이다. 권1의 한 책이 낱질로 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1635년판 『妙法蓮華經』의 소장처는 과거사가 유일하다. 이 판 또한 초주갑인자를 번각한 계열로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 판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1573년 2월 趙貴唱, 丁丕屎 집안에서 새긴 뒤 雙溪寺로 留板한 판본의 보각판이다. 이 판은 25년 뒤인 1660년 2월에 재차 쌍계사에서 중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1660년판은 1573년 쌍계사 留板本 『妙法蓮華經』의 2차 보각에 해당한다.

전존하는 판본이 권1의 1책 영본으로 남아 있고, 본문의 대조를 통해 일부 보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第51張과 第59張은 결락되었다.

한편, 본문의 변란 밖에는 난외 시주자 즉 板施主의 명단을 새겨 두었으니,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밖에 관시주의 명단을 통해 1635년 보각판으로 확정할 수 있는 판은 \*로 표시하였다.

(권차-장차, [ ]표시는 1660년판 『妙法蓮華經』과 다른 인명)

崔氏粉介 兩主(弘傳序-1) / 捨堂連代 兩主(要解序-1) / 方芝屎 兩主(1-1) / 僅明 比丘(1-3)\*  
徐氏加也知(1-4) / 尙氏壽養 兩主(1-5) / 全難希 兩主(1-6) / 比丘 信學(1-7) /  
比丘 淡暉(1-8) / 姜氏安春(1-9)\* / 姜氏安春(1-10)\* / 敏胡 比丘(1-11) /  
柵日孫(1-12)\* / 裴守男 兩主(1-13) / 宗衍 比丘(1-14)\* / 柵吉男 兩主(1-15) /  
性玉 比丘(1-16)\* / 比丘 熙允(1-17) / 姜氏安春(1-18) / 僅明 比丘(1-19)\* / 姜氏安春(1-20)\* /  
姜氏安春(1-21)\* / 比丘 道奇(1-23) / 比丘 宗密(1-24) / 尙均 比丘(1-25) /  
六軒 比丘(1-26) / 比丘 覺僅(1-27) / 比丘 學敬(1-28) / 姜氏安春(1-30)\* /  
姜氏安春(1-31)\* / 玄太靈駕(1-33) / 處玄記付金氏寶音靈駕(1-34) / 善珪 比丘(1-35) /  
德一 比丘(1-36) / 比丘 性澄(1-37) / 比丘 戒淨(1-38) / 比丘 寶明(1-39) /  
蓮甘 比丘(1-40) / 李皓 兩位(1-41)\* / 姜勝立 兩主(1-42) / 白愛祜 兩主(1-43) /  
李皓 兩位(1-44)\* / 姜氏安春(1-45)\* / 朴義立 兩主(1-46) / 處玄記付金氏寶音靈駕(1-47) /  
姜氏安春(1-48) / 柵吉男 兩主(1-49) / 義明(1-50) / 姜氏安春(1-51)\* / 金延壽 兩主(1-52) /  
朴頓壽 兩主(1-53) / 戒訓 比丘(1-54) / 白ㄱ貞 兩主(1-57) / 英終 兩主(1-58) /  
張氏於叱德(1-59) / 學令 比丘(1-60)\* / 善積記付俞賞兩主靈駕(1-61) / 印訓 比丘(1-62) /  
天允 比丘(1-63) / 僅明 比丘(1-64)\* / 金氏末叱德 保體(1-65) / 徐內ㄱ山 兩主(1-66)\* /  
禮仁 兩主(1-68) / [林ㄱ牙里 兩主(1-69)] / 姜氏安春(1-71)\* / 義明(1-72)\* /

권1의 본문은 제72장에서 마무리되었고, 권1의 권말에 해당하는 제73장은 간행 관련 기록을 새겨 두었다. 나머지 본문을 새긴 판은 계선이 없는데 비해, 제73장 간기면은 계선을 새겨두어 보각한 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간기를 새긴 변란 밖에 ‘施主 [遷]演楊 兩主 / 化士 敬元 比丘’라는 목서기록도 눈에 띈다.

禪師 德宗 比丘 / 禪師 雙淳 比丘 / 大施主 曹千世 兩主 /  
施主 朴風世 兩主 / 施主 惠墨 比丘 /  
助緣 玄覺 比丘 / 刻手 守仁 比丘 戒天 比丘 義明 比丘 /  
鍊板 寶積 比丘 / 供養主 義哲 比丘 / 幹善化士 居士 趙啓信 兩主 /  
崇禎八年乙亥二月日公清道恩津雙溪重刊 /

3.2.19 『妙法蓮華經』(1冊 缺, 1660년 02월)

妙法蓮華經 / 九摩羅什 奉勅 譯, 木板本  
恩津 : 雙溪寺, 1660.  
線裝 7卷6冊(完) : 四周單邊 半郭 23.1 x 16.3 cm, 無界, 半葉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3.5 x 24.6 cm  
刊記 : 順治庚子二月恩津雙溪寺重刊

이 판은 경북대학교 도서관 소장본(古 294.33 불73口(146))이다. 전체 7권 6책의 완질로 전하며, 1660년판은 원광대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판 또한 초주갑인자를 번각한 계열로 앞서 언급한 바대로 간기에는 ‘…雙溪寺重刊’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1573년 2월에 雙溪寺로 留板한 판본의 보각판으로 판명된다. 즉, 1635년 2월에 1차 補刻이 있었고, 연이어 사찰에서 이루어진 『妙法蓮華經』의 2차 보각판임을 알 수 있다.

먼저, 본문의 변란밖에 새겨진 난의 시주자 또는 板施主의 명단이 새겨져 있고, 이들은 모두 238명이다. 이 판시주 명단에는 앞서 두 차례 간행된 1573년과 1635년 그리고 당해년인 1660년의 施主名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시주 명단 가운데 鄭番山, 鄭石只, 內ㄱ伊 등 상당수는 1573년 초간시 참여자 명단에 수록된 인물들이다.

즉, 이처럼 동일 인명이 나타나는 판은 1573년 初刊 목판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본문의 내용은 1573년 쌍계사 留板本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권1의 말미에 간행 관련 기록을 새겨둔 차이가 있다. 한편, 이 1660년판은 별도의 발원 문구는 보이지 않고, 권1의 권말에 해당하는 제73장에 보각 당시의 기록인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供養施主 柵日孫 兩主 / 供養施主 徐內ㄱ山 兩主 / 施主 姜氏安春 /  
 布施施主 蓮甘 比丘 / 李皓 兩主 / 性玉 比丘 / 施主 全難希 兩主 /  
 金氏末叱德 保體 / 尙均 比丘 / 敏皓 比丘 / 宗衍 比丘 / 學令 比丘 /  
 妻玄記付亡母寶音靈駕 / 趙氏宋立保體 /  
 刻字 森印 比丘 守卬 比丘 / 重刊 僅明 比丘 /  
 順治庚子二月恩津雙溪寺重刊 /

### 3.2.20 『佛說大報父母恩重經』(1冊 完, 1681년 03월)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鳩摩羅什(後秦) 譯, 木板本.  
 恩津 : 雙溪寺, 肅宗 7(1681).  
 不分卷 1冊(24張) : 圖, 四周單邊, 半郭 23.2 x 20.8 cm, 無界, 半葉 10行17字,  
 內向2葉花紋魚尾: 32.5 x 26.5 cm.  
 表題 : 恩重經  
 刊記 : 康熙二十年(1681)辛酉三月日忠清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刊

이 판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D 213.18 은77入) 소장본이다. 이 판의 간기면을 새긴 목판 한 장이 현재 합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다. 이 쌍계사판은 현재까지 알려진 한문본 『父母恩重經』 판본 41종 가운데 앞서 간행된 판본의 양식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형식으로 판각<sup>32)</sup>되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판심의 제목은 ‘恩’ 또는 ‘恩重經’으로 새겼다.

32) 송일기, “韓國本 『父母恩重經』: 漢文”의 판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19집(2000. 12), 191.

한편으로 이 판의 권말 牌記에 따르면, 쌍계사판은 1593년 孝安皇后(1536-1596)<sup>33)</sup> 發願版을 그대로 새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593년에 『父母恩重經』이 간행된 사례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간행 사례를 조사해 봐야 단정할 수 있겠으나, 이 판은 중국 명나라 간본인 孝安皇后가 발원하여 700부를 간행하였던 판 중 일부가 우리나라에 전해져 한국 사찰에서 재차 간행한 번각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쌍계사판의 변란 우측 하단에는 시주자 명단이 새겨져 있어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張次)

魯大惡 兩主(1) / 姜佑善 兩主(2) / 金漢龍 兩主(9) / 春節保體(10) /  
俞得男 兩主(11) / 姜勝立 兩主(12) / 敬行 比丘(15) / 法准 比丘(16) /  
林順明 兩主(19) / 俞四福 [兩主](20) / 姜信芳 兩主(21) / 俞五福 兩主(22) /  
覺悅 比丘(23) / 法敏 比丘(24) / 同知 朴春立 兩主(37) /

또한 권말의 제37장에는 쌍계사판의 저본이 되는 1593년 孝安皇后 發願版의 패기가 그대로 새겨져 있고, 연이어 쌍계사판의 간행 참여자 및 간기를 새겨두었다. 이 판에는 별도의 발문이나 발원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제37장 a면]

萬曆二十一年十月吉日信心 / 大明仁聖儀晏康靜皇太后發心印造 /  
佛說大報父母恩重經七百卷永遠看供 /

[제37장 b면]

【施主者 名單 (24人)】

刻手秩 舜日 比丘 敬玉 比丘 雲贊 比丘 /  
鍊板 學倫 比丘 / 書寫 智文 比丘 / 供養主 春鶴 單身 / 別座 宗衍 比丘 /  
大功德主 清信居士 朴無叱同 兩主 /  
康熙二十年辛酉 三月日 忠清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刊 /

### 3.2.21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諺解)』(2冊 完, 1760년 05월)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 [釋] 慧苑 編, 木板本.

恩津 : 雙溪寺, 英祖36年(1760).

不分卷 2冊(55張), 變相圖 : 四周雙邊, 半葉匡郭:21×14.3cm, 有界, 10行 20字, 注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不同); 30.6×20.1cm

表紙書名 : 普賢行願品, 版心書名 : 行啓, 行啓眼, 行, 行釋, 千手, 千七佛, 心經

卷末 : 崇禎三庚辰(1760)五月吉日 錦溪門人青坡慧苑

刊記 : 乾隆二十五年庚辰(1760)五月吉日 湖西恩津雙溪寺板殿刊

33) 1558년 裕王 繼妃로 책봉되고, 1572년 황태후로 격상, 1578년 仁聖貞懿皇太后로 존호가 추가.

이 판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古 1730-50-v.1-2)이다. 본문은 전체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普賢行願品』의 한문 원문에 한글로 음과 구결을 달아 언해하였다. 본문을 새긴 뒷부분은 「천슈 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계경」과 「七佛」, 「心經」 등의 편이 합각되어 있다. 당시 『普賢行願品』 등을 새긴 목판 11매가 현재 합천 해인사에 낙질로 남아 있다.

권말의 발문 및 간행 참여자를 새긴 판의 관심제목은 ‘華嚴施主’로 본문과 구분하여 판각하였다. 이 판의 간행 동기는 승려 혜원이 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普賢行願品』의 독송은 그 이로움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니,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며 읽어 복을 받고 성불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판각하게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권말에 새긴 발문과 참여자들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더불어 참여자 명단에서 다른 판과 달리 사찰이 위치한 恩津과 비교적 가까운 9곳의 시주자 명단을 구분하여 나열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大哉此經一聞之功已超三千七寶之施況親能讀誦可謂群 /  
 經之王歟故今以諺解釋普令諸人通爲見聞願善男善 /  
 女會須愛持消除災障頓增福壽速成佛果至禱至禱歲 /  
 崇禎三庚辰五月吉日錦溪門人青坡慧苑謹白 /  
 願刻設立 大功德 羅彩夏 前南 斗星 敬岑 /  
 礪山<sup>34</sup>申命相 / 信海 / 聖基 / 趙光禮 / 崔泰重 / 崔漢秀 / 崔漢輔 / 崔道伊冠 /  
 李多叱注乙 / 李老卽卞乙 / 崔龍節 /  
 咸悅<sup>35</sup>吳泰成 吳繼祚 趙光祐 趙益采 閔僅福 張萬歲 /  
 恩津 朴正峰 徐東積 崔世重 李東現 金直光 德宗 德海 文益 義清 祖仁 性能 道原 大機 /  
 連山<sup>36</sup>崔碩東 崔碩奉 崔者 談 崔尙必 崔千己 /  
 錦山<sup>37</sup>吉聖道 /  
 尼山<sup>38</sup>姜善奧 金二南金 鄭占同 金石碧 李匡德 朴善昌 禹甲孫 金千才 大演 守仁  
 敬贊 自根 德嘗 尙祐 金老節 崔致文 池[ ]己 金得秋 /  
 全州 竺英 守忍 道察 玉聰 呂崑 自明 /  
 高山 丁鶴松 梁性澄 崔致貴 /  
 益山 崔性才 /  
 [施主者 名單 (34人)]  
 刻官 徐相達 吉聖道 金己三 金令才 白性得 /  
 緣化 老德 信裕 / 李率萬 / 崔德昌 / 姜石才 / 思運 / 聖機 / 道徽 / 碩連 / 學禪 /  
 性演 / 最閑 / 道元 / 化主 道嘗 / 引勸 彩還 就性 / 持殿 守一 / 維那 得性 /  
 三綱 竺敬 贊英 德淳 / 木手 敏彥 / 供給 采心 師一 / 書寫 任光 / 校對 青潭 體敬 /  
 內外察任兼持殿 卓英 /  
 乾隆二十五年庚辰五月吉日湖西恩津雙溪寺板殿刊 /

34) 전북 익산 인근의 礪山.

35) 전북 익산군 내의 지역으로 臨陂郡의 領縣이었음.

36) 충남 논산.

37) 충남 錦山.

38) 충남 논산 인근의 尼山.

## 4. 간행 불서의 서지적 특징

### 4.1 간행 동기

사찰의 제반 인력과 물자가 동원되는 佛書의 개관 업무는 다양한 목적에서 비롯될 수 있다. 예컨대, 사찰의 위상이나 명분을 세우기 위한 출판, 또는 판각에 참여한 신도들을 축원하거나 왕실의 안녕 또는 죽은 이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한 것, 간본의 유포나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판각, 사찰의 업무와 의식에 참고하거나 승려들의 독송 등 실무적인 필요성에 따른 개관 등 여러 범주로 구분되기도 한다.

물론, 이 가운데 수요와 공급이라는 실제 관점에서는 다분히 사찰의 실용적 필요성에 따른 판각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불경류의 판각 동기는 서문이나 발문을 통해 남기는 것이 불서 간행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이었다.

쌍계사에서 새겨진 일련의 판본들을 간행 동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본래 목적은 여느 사찰과 마찬가지로 사찰의 수요나 필요성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쌍계사 판본들의 序跋이나 권말 기록에는 이와 같은 실제 刊役 이유는 접어두더라도, 개별 서적마다 책의 발원문이나 간행 동기를 따로 밝히고 있다. 권말의 發願文이나 발문에 밝힌 쌍계사관의 간행 동기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즉, 주상과 왕비, 세자 또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간행한 판본은 『高峯和尚禪要』(1565), 『佛祖三經』(1571), 『禪宗永嘉集』(1572), 『緇門警訓』(1614)의 4회이다. 그리고 佛法의 창달, 시주자들 또는 백성들의 평안을 도모하고자 간행한 판본은 『大慧普覺禪師書』(1566),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7), 『月印釋譜』(1569), 『隨求即得陀羅尼』(1569), 『妙法蓮華經』(1573), 『景德傳燈錄』(1614), 『妙法蓮華經』(1635), 『妙法蓮華經』(1660), 『普賢行願品』(1760)의 9회로 드러난다.

그 밖에 『誠初心學人文』(1567), 『蒙山和尚六道普說』(1568), 『天地冥陽水陸齋義纂要』(1571), 『誠初心學人文』(157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74), 『北斗七星供養文』(1580), 『五大眞言』(1634), 『佛說大報父母恩重經』(1681)의 8회의 開板 불사는 간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 4.2 출판 방식 및 경판의 보존

여느 사찰과 마찬가지로 쌍계사관의 간행은 사찰에서 재원과 인력을 조달하여 경내에서 출판까지 일단락짓는 자체 판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16세기 후반 쌍계사의 불서 간행 방식은 재원 조달 등 간역의 실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私家의 재원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이원화된 출판 방식도 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출판이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 사찰 출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 조달이 핵심적인 관건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쌍계사관 중 16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비교적 큰 규모의 출판 사업 중 『月印釋譜』(1569), 『佛祖三經』(1571), 『禪宗永嘉集』(1572), 『妙法蓮華經』(1573)의 4종 불서 개관 사업은 사가의 재원과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간행 참여자의 명단으로 판단하면, 실제 판각이나 刊役의 제반 실무는 사찰에 소속된 刻手나 승려들이 다수 참여하여 이루어졌고, 일부는 사가의 인력들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특정 시주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간기에 그대로 새겨졌고, 이후 판목은 모두 쌍계사의 板殿에 비치하면서, 필요할 때 추가로 인출하여 서적을 유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은 현존하는 판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실제 전존하는 판본 중 후쇄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한편, 쌍계사처럼 개별 사찰에서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불서를 간행하였다면, 경관을 보존하는 건물이나 관리하는 공간이 틀림없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관련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사찰에는 이처럼 쌍계사에서 판각한 경관 또는 사가에서 판각하여 이전해 온 경관을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공간이나 건물 명칭이 알려진 바는 없으나, 1760년 『普賢行願品』의 간기에는 ‘…恩津雙溪寺板殿刊’이라는 간행 문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사찰 내에는 ‘板殿’이 있었고, 출판의 활동과 더불어 경관의 보존도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소위 ‘板殿’에서 관리되던 경관은 조선시대 이후 또는 근대 이후 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연유인지 인근 공주의 岬寺에 移藏<sup>39)</sup>되었고, 현재까지도 상당수 경관은 감사에 보관되어 있다. 더불어 사찰에서 간행된 경관 중 『禪宗永嘉集』(1572), 『佛祖三經』(1571), 『父母恩重經』(168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74), 『妙法蓮華經』(1635), 『妙法蓮華經』(1573), 『景德傳燈錄』(1614)의 7종 목판은 현재까지 합천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문헌 근거는 아닐지라도, 판목 이전의 유일한 단서로 1936년경 공주 岬寺의 住持가 당시 쌍계사에 『月印釋譜』를 비롯한 판목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보관이 소홀히 되고 있어서 岬寺로 옮겨놓았다<sup>40)</sup>는 전언이 남아 있다. 또 한편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 즉, 18세기 중엽 사찰의 대규모 화재 때, 소실을 면한 사찰 경관들이 인근 岬寺나 장경각 등 경관의 보존 시설이 잘 갖추어진 法寶宗刹 海印寺에 이관되었다가 현재까지 전승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9)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7), 『月印釋譜』(1569), 『北斗七星供養文』(1580), 『高峯和尚禪要』(1565), 『大慈普覺禪師書』(1614), 『蒙山和尚六道普說』(1568), 『佛祖三經』(1571)의 일부(일부는 해인사로 移藏), 『緇門警訓』(1614), 『天地冥陽水陸齋義纂要』(1571), 『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陀羅尼』(1569), 『五大真言』(1634)의 11종 경관으로 조사됨.

40) 조문제, “鷄龍山 甲寺 소장 『月印釋譜』 卷21 雙溪寺 板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20권(1959. 2), 189.

### 4.3 간행 서적의 주제 및 간행 시기

특정 사찰에서 관각된 서적의 주제별 분포를 일별하면, 해당 사찰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찰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다양한 분야의 경전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출판에는 사찰의 전통성이나 종파보다는 범불교적인 테두리에서 실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이 더 우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찰에서 간행된 서적의 주제를 일람하는 것은 당시 해당 사찰의 성격과 출판 동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과적으로 쌍계사 판본은 宗義部 禪宗類 서적의 출판 빈도가 매우 높았고, 그 외에 『法華經』과 『恩重經』 등의 경전류 및 사찰의 의식에 필요한 의식서 간행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개관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쌍계사 간본의 주제별 분포

부별	유별	회수	비율	경전명
經典部	華嚴經類	1	5%	『普賢行願品』(1760)
	法華經類	3	14%	『妙法蓮華經』(1573), 『妙法蓮華經』(1635), 『妙法蓮華經』(1660)
	經集類	3	14%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7), 『佛祖三經』(1571), 『佛說大報父母恩重經』(1681)
	密教經類	2	10%	『隨求即得陀羅尼』(1569), 『五大真言』(1634)
宗義部	禪宗類	8	38%	『高峯和尚禪要』(1565), 『大慧普覺禪師書』(1566), 『誠初心學人文』(1567), 『蒙山和尚六道普說』(1568), 『誠初心學人文』(1572), 『禪宗永嘉集』(1572), 『景德傳燈錄』(1614), 『緇門警訓』(1614)
	禮懺類	3	14%	『天地冥陽水陸齋義纂要』(157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74), 『北斗七星供養文』(1580)
史傳部	記傳類	1	5%	『月印釋譜』(1569)
합계	.	21회	100%	.

이와 더불어 간행 시기면에서는 16세기 간행 활동이 14회(67%) 이루어져 사찰 출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7세기 6회(28%), 18세기는 1회(5%)에 그쳤다. 이는 앞서 쌍계사의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찰의 盛衰와도 같은 흐름을 보이며, 서적의 간행 빈도 또한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찰은 18세기 대규모 화재를 겪은 뒤 2년여 만에 회복되었으나, 그 뒤 19세기에 들어서는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4.4 간행 참여자

서책이나 경전에 대한 수요와 간행의 필요성이 전제되어, 재원이 마련되면 다양한 부류의 인원들이 참여하여 사찰 출판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출판의 실무에서 판을 새기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였다.

쌍계사판 불서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경전의 분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주로 3-5명 정도가 판을 새겨내었다. 반면, 『妙法蓮華經』(1573)이나 『景德傳燈錄』(1614)과 같이 경전의 분량이 방대한 판은,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 많게는 10명 넘게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각수들의 1인당 판각 분량은 간행 경전에 따라 편차가 커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으로 적게는 5-6판에서 많게는 60여 판까지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수행하였던 판을 새기는 기술은 전문 영역에 속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의 사찰 경전 간행에는 어김없이 중복해서 활동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月印釋譜』(1569)를 위시하여 『禪宗永嘉集』(1572), 『妙法蓮華經』(1573) 등 쌍계사판 간행서의 절반 이상이 본문을 새긴 변란 밖에 별도의 판시주 명단을 새겨두었다. 물론, 이들은 권말의 간행참여자 명단에 재차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간역 사업 시 재원 조달과 간역 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업무를 도왔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뒤따랐다. 특히 시주자들은 적게는 10여명에서 대규모 佛事였던 『妙法蓮華經』(1635)의 경우 320여 명, 『景德傳燈錄』(1614)의 刊役에는 43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함께하고 재화를 보태기도 하였다.

그 밖에 『妙法蓮華經』(1573), 『景德傳燈錄』(1614)과 같이 경전의 분량이 많은 경우 교정하는 인력이 참여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더불어 『佛說大報父母恩重經』(1681)이나 『普賢行願品』(1760) 등 일부 판에서는 간행 실무면에서 번각이 아닌 경우 사찰의 중간 시 판하본을 다시 쓴 書寫者의 참여가 눈에 띄는 사실이다.

#### 5. 맺음말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과거 조선시대 호서지역을 대표하던 사찰 중 하나였던 恩津 雙溪寺의 연혁과 역사에 대하여 관련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던 사찰 출판의 면모는 전존하는 판본과 판본에 나타나는 간행 기록의 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쌍계사는 초창기 창건에 관한 명확한 사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고려 중엽인 11세기경 창건된 뒤, 고려말 右代言을 역임한 杓村 李岳(1297-1364)에 의하여 사찰의 중창이 이루어졌다. 또한 현존하는 기록을 아울러 보면, 조선 초기에는 호남의 대찰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뒤 화재 등으로 3차례 이상의 重修 사례가 확인되는 등 수차례 부침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寺勢는 이내 제자리로 회복되었고, 18세기 중엽까지는 그 세력이 면면히 이어졌다.

사찰 출판의 관점에서 쌍계사의 출판 활동은 1565년에 시작되어, 16세기에만 14종에 달하는 불서를 간행하게 되었다. 17세기에는 그 빈도가 줄어 6회의 출판 활동이 있었고, 18세기 1종을 간행한 뒤 더 이상 사찰 출판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찰 출판의 빈도는 사찰의 부침이나 사세의 盛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결과적으로 쌍계사는 19세기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고, 근대 이후로는 그 명맥만 유지한 채 현재까지 寺名이 계속되었다.

사찰에서 출판된 서적의 주제는 총 21회의 불경 간역 사례 가운데 8회가 宗義部 禪宗類 서적의 간행이었다. 그 외에 경전류로 『法華經』과 『恩重經』, 사찰의 의식에 필요한 『中禮文』, 『結手文』 등 실용 의례서의 간행이 주를 이루었다.

결국 쌍계사 출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선종류 서적의 출판이 40%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불경 출판 시 16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4종의 대규모 간역 사업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유한 시주자들의 사가 출판을 적극 활용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사찰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할 수 없거나 인력 조달이 쉽지 않은 경우, 재원이나 인력을 私家와 분담 또는 협업하여 출판을 달성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정황은 다른 사찰의 출판 활동과는 구별되는 雙溪寺版의 특징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다만, 이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앞서 전존 판본의 고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물 자료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밝히지 못한 부분은 조사의 미진한 점으로 남아 있다. 추후 목록이 공개되지 않은 기관 소장본을 비롯하여, 개인 소장본 등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여 쌍계사 출판 활동의 전모를 밝히고, 이 연구에서 누락된 판본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原典]

『忠淸南道邑誌』 (1863년 이후, 필사본, 규장각)

『湖西邑誌』 (1871년, 필사본, 규장각)

『恩津邑誌』 (1901, 필사본, 국사편찬위원회)

『淸芬室書目』 (1968, 영인본)

### [단행본]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0.

김용선 지음. 『고려금석문연구: 돌에 새겨진 사회사』. 서울: 일조각, 2004.

- 金澤庄三郎 編. 『朝鮮書籍目錄』. 서울: 成進文化社, 1976.
- 국립문화재연구소 編. 『불교민속문헌해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 논산문화원 편. 『論山 金石文大觀』. 논산: 논산문화원, 2007.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編.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教典書 第8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上樑文集: 補修時 發見된 上樑文』. 서울: 문화재관리국, 1991.
- 문화재청 편. 『雙溪寺 大雄殿: 實測調査報告書』. 대전: 文化財廳, 1999.
- 문화재청 編.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4-2017 전국사찰목판 일제조사』. 대전: 문화재청, 2015-2018.
-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보고서』. 서울: 동연연구소, 2012.
-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釋尾春菴 編. 『朝鮮古書目錄』.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李智冠 著.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서울: 伽山文庫, 1993.
-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趙東元 編. 『韓國金石文大系 2』. 익산: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8.
- 朝鮮總督府 編. 『朝鮮寺刹史料』. 東京: 國書刊行會, 1971.
- 한국국학진흥원. 『충남지역의 목판 (1)-(4)』.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2012-2015.

[논문]

- 김동연. “조선본 『法集別行錄節要併入私記』 판본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
- 金相誤.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金性洙. “『目連經』의 성립경위.” 『圖書館學論集』 제10호(1983. 12). 1-25.
- 金永善. “『高峰和尚禪要』 板本考.” 『書誌學研究』 제14집(1997. 12). 161-212.
- 김유리. “『六經合部』의 판본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 김은진. “몽산 덕이 편찬의 『六道普說』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 김자현. “朝鮮前期 寺刹版 刊行佛書 考察.” 『佛敎研究』 제49집(2018. 8). 163-195.
- 김자현. “恩津 雙溪寺의 16세기 單幅變相版畫 研究.” 『미술사학연구』 제300호(2018. 12). 137-166.
- 南權熙.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판본 연구.” 『國會圖書館報』 제38권 6호(2001. 11). 82-100.
- 문명대. “釋俊·元悟과의 성립과 논산 쌍계사 삼세불상(1605년) 및 복장의 연구.” 『강좌미술사』 36권(2011. 6). 579-597.
- 閔泳珪. “목련경과 돈황의 變文.” 『史學會誌』 제1호(1963. 6). 1-17.
- 박광현. “刊經都監 간행 불서의 서지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7.

- 박도화. “『佛說大目連經』의 성립경위 재고와 판화의 圖像.” 『미술사학』 제12호(1998. 12). 25-52.
- 배현숙.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書誌學研究』 제5·6집 합집(1990. 12). 161-181.
- 송은식. “金堤 金山寺 조각승 淸虛의 造像 활동.” 『美術史學研究』 제279·280호(2013. 12). 203-237.
- 송일기. “父母恩重經 韓·中板本考.” 『한중인문학연구』 제5호(2000. 12). 179-215.
- 송일기. “鷄龍山 岬寺 所藏의 <父母恩重經諺解> 雙鷄寺 經板.” 『불교문화연구』 제6집(2005. 12). 123-154.
- 송일기·김은진. “몽산 덕이의 『蒙山和尚六道普說』의 판본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207-233.
- 오세덕. “18세기 승장 覺敏의 활동지역과 建築技法 연구.” 『美術史學研究』 제292호(2016. 12). 55-82.
- 오용섭. “영광 불갑사 복장본 강원교재 불서 연구.” 『書誌學報』 제35호(2010. 6). 183-206.
- 우진웅.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0집(2011. 12). 351-386.
- 尹炳泰. “忠淸地方의 印刷文化.” 『百濟文化』 15권(1984. 12). 31-51.
- 이상백. “『佛祖三經』의 간행과 판본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이세열. “忠淸地域 典籍文化에 關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89.
- 임윤수. “충청도 서산 지역 사찰의 책판 제작 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76집(2018. 12). 189-213.
- 임윤수. “16·17세기 충청도 서산지역 사찰의 목판 제작에 관한 연구: 開心寺·普願寺·伽倻寺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 鄭王根. “조선시대 『妙法蓮華經』의 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 조문제. “鷄龍山 甲寺 소장 『月印釋譜』 卷21 雙溪寺 板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20권(1959. 2). 188-190.
- 최선일. “남원 선원사 木造地藏菩薩三尊像과 조각승 元悟.” 『미술사학』 제27호(2013. 8). 231-257.
- 탁효정. “조선시대 王室願堂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허홍식. “나옹선사의 생애와 사상.” 『나옹선사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01. 5). 11-56.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ungcheongnamdoeupji* (1863, Gyujanggak)

*Hoseoeupji* (1871, manuscripts, Kyujanggak)

*Catalogue of Chungbunsil* (1968, photoprint)

Bae, Hyun-sook. 1990. “A study of the edition 『DaehyeBogakSunsaseo』.”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6: 161-181.

- Choi, Sun-il. 2013. "The Wooden Bodhisattva of Namwon Temple and the Sculpture Wono." *Art History*, 27: 231-257.
- Heo, Heung-sik. 2001. "The Life and Idea of Naongsunsa." *The Journal of the Academic Presentation Conference of Nayong Temple*: 11-56.
- Jeong, Wang-geun. 2012. *Study on the editions of 『Meiyobup-yeonwhatgyung』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Jo, Moon-jae. 1959. "On the edition of 『WallInseokbo』 Volume 21 of Ssanggyesa Temple in Keiryongsan Kapsa." *Korean Language Literature*, 20: 188-190.
- Kim, Dong-Yeon. 2015. *Joseonbon 『Beopjippyeolhaengnokjeoryobyeongipssagi』 books study*.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Eun-jin. 2012. *A Study on the Book 『Yukdoboeseul』 compiled by Mongsan Ducke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Kim, Ja-hyun. 2018. "A study on the 16th-century single-wavelength metaphors of Eun-jin Ssanggyesa." *Artological History Study*, 300: 137-166.
- Kim, Ja-hyun. 2018. "Buddhist books published in a temple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Book of Buddhist Studies*, 49: 163-195.
- Kim, Sang-ho. 1990. *A Study on an engraver of sachalpan in Chosun Dynasty*.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 Kim, Sung-Soo. 1983. "The circumstances of its formation 『Mokyeongyeong』." *Journal of Library Studies*, 10: 1-25.
- Kim, Young-Sun. 1997. "『Gobonghwasangsunyo』 panbongo."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14: 161-212.
- Kim, Yu-ri. 2013. *The Study of 『Yookkyunghapboo』*.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Lee, Sang-baek. 2012. *A study on the Publication and the Book of 『Buljosamgyung』*. Master's thesis.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Lee, Se-yeol. 1989. *A Study on the Traditional Culture of Chungcheng Area*.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Cheongju University.
- Lim, Yoon-soo. 2018. "Study on the book-making activities of temples in Seosan Chungcheongdo."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6: 189-213.
- Lim, Yoon-soo. 2018. *Study on the Wooden Print of the Buddhist Temple in Seosan, Chungcheong Province,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he thesis for master's degree,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Min, Young-kyu. 1963. "The Analects of the Magnolias and Don Huang." *Journal of the Sociology*, 1: 1-17.
- Moon, Myung-dae. 2011. "The Formation of the Seokjun and One-Oppa and the Study of the Three Buddhas (1605) and the Clothes of Ssanggye Temple in Nonsan." *The History of Kangjwa Art*, 36: 579-597.
- Nam, Kwon-hee. 2001. "A study on the edition of 『Bulseoljangsoomyeljeadarani-gyung』." *National Assembly Library Bulletin*, 38(6): 82-100.
- Oh, Se-duk. 2016. "A study of the active areas and architectural techniques of Gakmin of the 18th century." *Art History Study*, 292: 55-82.
- Oh, Yong-seop. 2010. "Study on Buddhist texts in Bulgapsa temple in Younggwang area." *Seoji Hak-bo*, 35: 183-206.
- Park, Do-hwa. 1998. "A drawing of the status of 'The Buddhist Archipelago' in stock and engraving." *Art History*, 12: 25-52.
- Park, Kwang-heon. 2017. *A bibliographic study of the publication of the Gangyungdogam*.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ong, Eun-seok. 2013. "The Ancestor Activities of the Sculpture of Geumsan Temple in Gimje." *Art History Study*, 279 · 280: 203-237.
- Song, Il-gi. 2000. "The edition of 『Boomoeunjoonggyung』 in Korea and China." *Journal of Literature*, 5: 179-215.
- Song, Il-gi. 2005. "The woodblocks fo 『Boomoeunjoonggyungeunhae』 of Gyeryongsan Mountain Gapsa, Ssanggyesa Temple." *Book of Buddhist Culture Studies*, 6: 123-154.
- Song, Il-gi and Kim, Eun-jin. 2011. "The edition of Mongsan Duckee's 『Mongsanwhasangyoukdooboseol』." *Journal of the Korean Literary Information Society*, 45(3): 207-233.
- Tak, Hyo-jung. 2012. *A research of the temple at the Royal Shrine of the Joseon Dynasty*. A doctoral dissert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Woo, Jin-woong. 2011. "Study on the edition of 『Sooryukmoochapyungdeungchalyo』."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0: 351-386.
- Yoon, Byung-tae. 1984. "Printing culture in Chungcheng provinces." *Baekje culture*, 15: 31-51.